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 The JeonBuk Times



2025년 10월 17일(금) 제 3188호

# 전북도, 2026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돌입

국회단계 증액 '상주반' 운영 가동 기재부·핵심인사면담쟁점설득 70대 핵심사업 반영 '원팀' 전략 상임위·예결소위 맞춤형 병행

전북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 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 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 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 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 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 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 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 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 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 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의 필요성 을 설득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도 구축한 다.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



전북,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총력 가동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 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도 및 시군 국 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 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 의관 등과의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추 진한다. 이어 예결위 위원장·간사·소위 위원, 국회의장, 원내대표 등 핵심 인사 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 주요 사업의 증 액 타당성을 집중 설명한다.

상임위별로는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 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이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대 최대 국가예 산 확보를 위한 원팀 대응을 강화한다 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회단계는 국 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 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 의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 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말했 /장정철 기자

# 안호영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미활용 전력망 신규 원전 맞먹어"

## 평균 지연기간 풍력 6년 달해 RE100 산단 등 전환 차질 우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전력공사 전력망 사용을 태양광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명 목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 사업 지 연으로 미활용되고 있는 전력망 규모 가 신규 원전 16호기의 발전 규모인 1 만6천MW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과 송전용 전기설비 이 용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개시일을 초 과한 발전사업은 총 393건(16,208MW) 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

에너지원별로 풍력 8,474MW, 태양광 3,982MW, 열병합 1,844MW였으며, 평 균 지연일수는 풍력 1,964일, 연료전지 1,206일, 태양광 1,067일, 열병합 523일 이었다. 즉 미사용 용량 중 상당수가 신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성 악화나 자본 부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잦아, 다른 발전사업보다 지연 사례가 많은



안호영 의원

는 풍력발전의 경 우, 주민 수용성 문제·지자체 인 허가 장벽 등에 가로막혀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경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평균 지연기

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전력망만 선점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한전이 회수 및 재배분 기준을 마련해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한전은 알박기 사업자 관 리기준을 강화해 2024년 하반기부터 알박기 용량에 대한 회수를 본격화했 으며, 용량 회수로 확보한 약 5.0GW는 준비된 사업자와 신규사업자에게 재분 배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 의원은 "전력계통을 미리 확보한 사업자들의 운영이 지연되며 신규사업 자 진입이 막혔고, 수급 불안도 심화되 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 전 차원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남원의료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체계 구축

## 전북도 사업 수행기관 선정 응급실 처치부터 원스톱 지원 정신건강센터 연계 1달 이상 관리

전북도는 남원의료원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응급실 기반 자 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신규 수행기관 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 도자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치료와 상담 서비스로 연계해 재시도 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응급의

료와 정신건강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해 자살위험군을 조기에 개입·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원의료원은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응급처치뿐 아니라 초기상담, 정신과 적 평가, 단기 사례관리 등을 실시한 다. 이후에는 지역 및 권역 정신건강복 지센터와 연계해 최소 1개월 이상 사 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병원 내에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사례관리 인력을 배치

응급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의가 함께 참여해 응급실 단계부터 사 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이번 선정은 전북도와 남원의료원이 협력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신건 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협약한 결과다. 도는 앞으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협의회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 학교병원, 예수병원, 대자인병원 등 4

곳이 해당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 이며, 지난해 1,152명의 자살시도자가 이들 병원 응급실을 통해 치료·관리를 받았다. 남원의료원이 새로 참여함으 로써 도내 5개 기관이 자살시도자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의 거점 역할을 맡게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자 살위험군을 가장 먼저 만나는 최전선" 이라며 "남원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촘촘한 안전망 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선관위, 법인자금 정치기부 업체 대표 검찰 고발

## 300만원 의원 후원회 기부 혐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모 업체 대 표 A씨를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본인이 임원으로 있 는 업체 명의로 300만원을 특정 국회의 원후원회에 기부했으나, 후원회 회계 책임자로부터 법인 자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반환 받은 당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모 업체 자금 /장정철 기자 300만원을 다시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후 원회 회계보고 조사에서 드러났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제2 항에서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와 관 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 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 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 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법의 테두 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 /장정철 기자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 전북, 팁스 연계 기술창업 기업 64개社 집중 육성

## 민간주도형 창업 활성화 지원 도지원에초기벤처투자급감속 양적·질적성장성과두드러져

전북도는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 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6개 팁 스(TIPS) 운영사와 손잡고 64개 기술창 업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6일 밝혔 다.

팁스(TIPS)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 한 투자사가 유망한 창업기업에 먼저 1 리스크가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17 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 술창업 기업이 초기에 겪는 '데스밸리 따르면, 전국 초기단계 벤처투자 자금 (성장 정체기)'를 넘기도록 돕는 대표적 은 2022년 2조 50억 원에서 2024년 1조 띈다. 2024년 팁스 도전기업으로 육성 인 창업 지원정책이다.

전북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팁스 팁스선정기업은 같은 기간 2개에서 22

운영사가 없어 지역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전북자치도 는 2023년부터 운영사 프로그램 운영비 를 지원하고,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팁스에 도전하도록 돕는 '민간주도형 기 술창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 20개, 2024년 40개, 2025년 64개 등 팁스도전 기업이 확대 와 함께 도내 기술창업기업의 팁스 진 출을 뒷받침했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 가 두드러진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2,633억 원으로 37% 급감했지만, 도내



전북도는 6개 팁스(TIPS) 운영사와 손잡고 64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팁스 도전 우수성과기업 파마로보틱스의 제품. <사진=전북도>

개로 11배나 늘었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도 눈에 된 파마로보틱스, 에이티비랩, 지티에이 에어로스페이스, 주미당 등은 팁스뿐만

아니라 딥테크 팁스, 초격차 1000+ 사업 에도 선정되며 매출과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아 지역 창업생태계의 토대가 되

/장정철 기자

# 전북도,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서 새만금산단 매력 선봬

## 코엑스 첨단소재기술대전 참여 국제기업 대상 새만금 투자 홍보 세제 혜택 등 강점 집중 부각

엑스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첨단소 재기술대전에 참가해 새만금 국가산업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소재경제신문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첨단소재 산업 전문 박람 회로, 10,368㎡ 규모 전시장에서 국내외 150개 기업이 참가하고 이 중 37개는 해 외기업으로 구성되는 등 글로벌 기술기 위킹도 강화해 투자 관심도를 높일 예 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새만 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새 만금 국가산단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투자여건, 인프라, 인센티브 리로, 전북도는 새만금의 우수한 입지 등을 소개하고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투자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RE100 산단 지정을 추진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이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신재생에 너지 공급 기반을 갖춰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 생산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전북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점 홍보할 계 획이다.

또한 2023년 지정된 이차전지 특화단 단지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기업유치 지,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 택, R&D 지원 등 강점을 함께 부각해 글 로벌 첨단소재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 유인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 전북도는 행사에 앞서 홍보 브로셔, 영상, 기념품 등을 제작해 현장에서 배 포하고,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과의 네트 정이다.

이번 전시는 경량화 소재, 복합재료, 고기능 플라스틱 등 첨단소재 전 분야 의 최신 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 경쟁력과 에너지 인프라, 확장 가능성을 적극 알리며 기업 접점을 확대해 나간 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새만금을 첨단소



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제13회 국제첨단소재기술대전에 참가해 새만 금산단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사진=전북도>

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 참가를 통 해 첨단소재산업의 최신 흐름을 파악하 고, 새만금 국가산단의 우수한 입지와 투자 여건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것이 다"며 "첨단소재 분야의 유망 기업들과

재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전시회를 발판 삼 아 앞으로도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 새만금 국가산단 기업유치에 박차 를 가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박희승 "영유아 10명 중 2명 건강 관리 필요"

## 1차 건강검진 수검률 55% 불과 시행기관 확대·안내 강화 필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유 아 건강검증 결과 10명 중 2명은 주의 나 정밀평가 등 관리가 필요하는 등 건 강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 를 대상으로 각 월령별 총 8차례에 걸 쳐 영유아의 성장 및 발달사항을 무료 로 점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 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영 유아 110만 7,838명 중 '주의' 9.6%, '정 밀평가필요' 7.3%, '지속관리필요'는 1.4%로 나타나 약 10명 중 2명은 꾸준 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락했다. 이를 차수별로 보면 2024년 기준, 짧은 검진기간(생후 14일~35일)으로 검진 안내기한이 촉박한 1차 건강검진의 수



(69%), 대구·대 전(68.9%) 등은 비교적 양호했으나, 강 원(48.6%), 서울(49.4%), 경기(50.0%) 전남(50.4%) 등은 절반 남짓밖에 검진

지역별로 수검

장 높았고, 이

어 광주·경남

올해 8월 기준, 국가검진검진 지정기 관 3,793개소 중 영유아 검진을 실시 한 기관은 1,665개소(43.9%)에 불과하 다. 인천(35.6%)이 가장 낮았고 대구 (38.0%), 경기(40.9%) 순이었다.

이와함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20 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기관이 저조한 요인 등을 살피고, 비용 부담도 없는 만큼 기간 내 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윤 의원 "해경 단속인력 증원해야"

이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최근 5년간 해경이 압수한 마약이 2.4 2,347.22kg으로 월등히 많았고, 대마가 한민국 인구보다 많다. 9.5kg, 필로폰이 0.61kg 순이다. 이외에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과 같은 마약 가운데 해경이 단속한 양은 약 614kg으 단 한 건으로도 대규모인 경우가 많다"

경이 지난 5년간 압수한 필로폰과 코카 과 비교할 때 압수량 비중이 높고 단속 인은 1인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효율도 높은 편이다. 압수한 마약은 유형별로 코카인이 5,666만여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대

공과 해상을 통해 밀반입되는 경우가 2024년 국내 마약류 압수량 1,173kg 대부분이고,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경우 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해경 전담 며 "해경의 마약 단속 인원을 대폭 늘려



한병도 "비위 경찰 증가…시민감찰위 유명무실"

시민감찰위 구성 후 회의 없어

한 의원 "고강도 대책 내놔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

일 "비위 경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외부에서 감시감독하

는 시민감찰위원회의 활동은 오히

려 줄어드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찰공무원 징

계 건수는 2021년 493건, 2022년

471건, 2023년 486건, 2024년 536건

으로 2022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이어 지난 2012년부터 감찰 행정

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며 설치한 시민감찰위원회 개최 건

수는 2021년 22건에서 2022년과

2023년 21건, 2024년 15건, 2025년

상반기 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

시민감찰위원회는 본청과 시도경

찰청별로 설치돼 2개월마다 1회 회

의를 열고,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

령, 성희롱·성폭력 등 경찰관 비위

119건에서 2024년 181건으로 증가

다"고 비판했다.

며 이같이 공개했다.

인됐다.

올해 6월까지 는 107건 중 단 한 건도 심 의를 거치지 않았다. 경찰 청은 2020년 반부패협의회

라졌다.

를 구성했으 나, 2023년 임 기 만료 후 2기 협의회 출범 없이 사

또한 경찰청은 지난 2019년 시민 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 련하겠다며 '시민청문관' 제도를 도 입했으나, 2020년 274명이던 정원 이 2025년 7월 61명으로 급감한 상 황이다.

경찰청은 매년 실시되는 국민권익 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 터 2024년까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고, 특히 청렴노력도는 2021 년 1등급에서 2024년 3등급으로 곤 두박질쳤다. 경찰청이 사실상 내부 비위 자정작용을 포기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 의원은 "매번 '부패와의 전쟁' 이라면서도 일시적 · 면피용 대책을 사건을 심의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 내놓으니 낯 뜨거운 비위가 반복되 는 것이다"라며, "경찰청이 영구적 하지만 심의 대상 사건은 2021년 이고 구속력 있는 고강도 반부패 대 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 한 반면, 실제 심의 건수는 2021년 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강조했 24건에서 2024년 6건으로 줄었고, 다. /서울=김영묵기자

# 윤준병 "5년여간 해경 압수 마약 2.4톤, 전 국민 투약하고도 남아"

# 지난해 해경 압수 마약류 검경 2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투약하고 도 남을 정도로 마약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

간 압수한 필로폰, 대마, 코카인 등 마약 반입하다 14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해 (1인당 3.5명), 경찰 369명(1인당 36명) 류(양귀비 제외) 압수량은 총 2,357.6kg

류도 2.29kg이나 차지했다.

지지난 4월 강릉 옥계항에서 국외 벌 경이 지난 2020년부터 올 8알까지 5년 크선에 불법마약류 코카인 1.7톤을 밀

수사관 26명이 472명을 검거해 1인당 서라도 밀반입을 철저하게 차단할 필요 약 18명을 단속했으며, 이는 검찰 318명 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윤 의원은 "국내 마약류 대부분이 항



을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더 많은 곳에서 영유아 건



# 전주시, '11개 상수도 사업장' 대청소 돌입

## 수돗물위생'총력전' 총사업비약 1억1000만원투입 노후관정비수질검사병행

전주시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핵심 시설인 배수지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 청소 및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

도 사업장 총면적 7만5221㎡ 배수지 10 로 배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개소, 정수장 1개소에 대한 청소에 착수 한다고 16일 밝혔다.

에 누적된 침전물과 벽면 부착물 등을 깨 다. 끗하게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는 현행 수도법에 따라 매년 반기 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지 내 저수조를

1000만원을 투입해 전주지역 11개 상수 때년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정기적으

특히 시는 평상시 저수조 담수로 인해 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이 어려웠던 내부 시설 부분에 대한 이번 청소는 배수지 내부 저수조 바닥 세밀한 안전 점검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

또 시는 청소 기간 시민들의 단수 불편 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는 이달부터 총 45일간 총사업비 약 1억 별 1회 이상 의무적 위생 조치로서 시는 구획별로 나눠 청소와 급수를 교대로 실 시하는 등 각 가정에서는 청소 여부와 관 계 없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이뤄지

> 이와 함께 시는 '맑은물 공급사업' 2단 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노후 상 수관을 교체하는 등 녹물 발생 우려를 근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상수도본부, '안전한수돗물공급' 전문성 강화

## 상수도 전문 자격증 획득 총 8명 전문 인력 구축

전주시상하수도본부가 전주 시민들의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 문성이 한층 강화된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이기섭) 는 16일 지난달 환경부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서 소속 직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지난 방자치단체 등 일반 수도사업자가 상수 도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핵심 전문 자 격이다.

수과장, 최선경 수질관리팀장이 합격의 명을 포함해 총 8명의 1급 자격증 소지자 를 확보하게 됐다.

2020년 개정된 수도법 제21조에 따라 지 까지 △원수 확보 △맑은 물 정수 공급 △최적의 급수 관리 등 상수도 관리 인력 큼 전문적인 업무 능력이 필수"라며 "이 의 전문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스마트 기술

을 접목한 선진화된 운영 시스템을 도입 상하수도본부는 기존 팀장급 4명, 통합 해 시민들이 더욱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 고 강조했다. 원 3명 박이주 수질관리과장, 김춘식 급 관제센터 전문관 1명 등 이번 1급 합격 3 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책

을 마련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섭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상 이에 따라 관리자부터 현장 실무 직원 하수도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인 만 번 자격 취득은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 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전주시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김영태 기자

# 전주시, '2025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최우수상 수상

## 디지털 플랫폼 기반 행정소통 선도

전주시가 16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 흥협회 주최 '2025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 영광을 받 았다.

시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유튜브, 페 이스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 폼을 기반으로 한 행정 소통을 선도해 온 지자체로서, 지난 2017년 이래 최고 권위 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매 년 빠짐없이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 며 공공기관 SNS 운영의 모범 사례로 꼽 혀왔다.

이번 수상에 따라 전주시는 누리소통 망(SNS) 활용 지역민 소통에 힘써온 지 방자치단체로 평가됐다.

그동안 시는 전주의 사계와 명소, 유용 한 생활밀착형 시정 등을 감각적인 릴스



전주시가 16일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최 '2025 제15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부문 최우수상 영광을 받았다

또 공무원 서포터즈와 SNS 시민 홍보 다. 와 숏츠로 제작해 정보와 재미, 화제성 단, 시민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재능을 카카오톡 채널의 경우 안전 및 재해 알

등에서 단연 돋보이는 콘텐츠들을 선보 지닌 시민들을 참여시켜 시민과의 소통 확대 및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공을 들였

림 기능은 물론, 생활정보부터 감성 콘텐 츠에 이르기까지 '종합 매거진'에 버금가 는 풍성한 기획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전주시 SNS 채널의 산파 역할 을 했던 네이버 블로그는 50여 명에 이르 는 시민 기자단을 조직해 동네와 이웃 이 야기 등 지역성을 강화하면서 시민 호응 도를 높였다.

전주시 공식 블로그에서는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 키워드에 최적화한 제목과 메 타정보 설정 등으로 꾸준한 유입을 이끌 어 내면서 전주시 SNS 운영의 무게추 역 할을 해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 SNS는 전주 의 역사와 문화, 관광, 시정을 아우르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이자 시민 소통의 역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활 용한 시민과의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쌀·가공식품 "뉴질랜드 수출길 오른다!"

## 쌀 10톤 누룽지 등 2.7톤 선적

뉴질랜드 수출길에 오른다.

16일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은 전주에서 생산된 쌀 10톤, 누룽 것으로 보인다. 지, 배숙식혜 등 쌀 가공식품 2.7톤 등이

그간 시는 주로 대만과 동남아시장을 와함께했다. 전주시 생산 쌀 또는 농식품 가공품이 겨냥해 배와 딸기 등 원예농산물을 주력 으로 수출해 왔다.

장은 전주산 쌀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쌀 또는 농식품 가공품은 뉴질랜드 현지 면 많은 동포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 대한 현지 반응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에서 우리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될

질랜드 재오클랜드한인회(회장 홍승필) 대 25kg까지는 증명서 및 검역·훈증 등

지난달 29일 전주를 찾은 뉴질랜드 재 오클랜드한인회 관계자는 "뉴질랜드 대 끼고 싶은 해외동포에게 커다란 의미로 더불어 수출길에 오르게된 이번 전주 축제 한인의 날에 전주산 햅쌀을 판매하 다가올 뉴질랜드 쌀과 가공식품 수출에 대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농산품 수출행정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쌀 또는 농식품 가공품 선적은 뉴 절차가 완화되면서 소포장 쌀의 경우 최

을 하지 않아도 돼 수출길이 편리해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고향의 밥맛을 느 해 다양한 품목이 지원되도록 적극 검토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한시 지원

안정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해 원할 예정이다. 준다. 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 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 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다. 감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 전주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로의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낮춰 지

> 임대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으로, 임대료 지원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료의 50%를 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

시는 현재 공유재산을 사용 중인 자 외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시는 자에게도 신청 절차를 거쳐 환급 및 감액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 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기간에 납부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감면 대상은 전주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1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공유재산 임대료 감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감해 지원한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이는 지난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사용 종료된 자 또는 사용 예정인 은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등을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 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독려

## 박수진 실장, 양파 주산지 방문

은 16일 양파 주산지인 무안을 방문해 농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감소분 전액을 업수입안정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 락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연도 수입(收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入)이 과거 평균 수입(收入)의 일정 수준 보상하는 제도이다.

2015년 도입해 시범 운영해 오다 올해 양파, 마늘, 보리 등을 포함한 6개 상품이

부터 전국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착수했 판매될 예정이다. 다. 총 15개 품목에 대해 운영하며 콩, 마 늘, 양파, 보리 등 9개 품목은 전국 대상 일부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개 상품이 판매 완료됐으며, 10~11월 중 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양파 생산자단체 등을 만나 "11월까지 양파, 으로 벼, 봄감자, 가을배추 등 6개 품목은 마늘 등 6개 품목의 가입기간이 진행되 므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15개 품목 18개 상품 중 현재까지 12 많은 농업인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협

/정소민 기자

## 전주지역 여성 재취업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개최

## 경력단절여성 현장채용행사

전주지역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위한 일자리 행사가 개최됐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양 희옥)는 16일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들의 재취업 성공과 도약을 응원 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다. 개최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 사에서는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 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생, 여성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센터 내 현 장 채용 면접부스가 운영됐다.

아울러 △전문가 코칭 △이력 서·자소서 상담 △취업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됐다.

특히 '직업 도전관'에서는 전주지 역 11개 여성 친화기업의 현장 채 용 면접부스가 마련돼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무·조리분야 등 여러 직종의 직원 채용 면접이 진행됐

다불어 '전문가 멘토 코칭관'에서 는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및 코칭을 통해 △경력 개발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진로체 험관'에서는 △타로카드 △지문적 성검사 △천연 화장품 만들기 등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정소민 기자

## 전주덕진소방서, 비응급 119신고 자제 당부

## 중증 응급환자 대응 지연

최근 비응급 신고 증가로 인해 실제 위급한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구급대 원은 비응급환자의 출동 요청을 거절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응급 환자 유형 △단순 치통 △감 기 등 가벼운 질환(고열·호흡곤란 동 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이나 타박 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 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 원 간 이송 또는 자택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혹시라도 시 민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 걱정되어 전화 한 통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안 다. 전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비응급 신고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는 16일 응급환자 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 해 시민들에게 119구급차의 비응급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31만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현 장을 누비고 있다.

현재 전주덕진소방서는 119구급차 6대를 운영 중이며, 총 54명의 구급대 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신고 단계부터 응급성 판단을 강화하고 비 응급 출동 감소를 위한 맞춤형 홍보 와 교육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

/김영태 기자

## 전주향군, 전적지 순례 안보현장 견학

전주시 재향군인회(회장 김범준)에 서는 16일 '2025년도 전적지 순례 및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안보현장 견학은 아산현충사, 독립 기념관 일원이며 이날 전주향군 회장 단, 이사단, 여성회, 청년단, 동회 대의 원 등 120명을이 참석했다.

행사는 충무공 이순신의 전공을 기 리기 위해 건립된 아산현충사를 출발 해 외침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극 복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 연구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

민의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 가관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1982년 8월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천안시 목천읍 흑성산 일대에 건립한 천안 독립기념관을 견 학했다.

견학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선배들의 발자취와 숭고한 희생을 귀 감으로 삼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 으로써 다시한번 국민 안보의식의 중 요성을 상기하는 향군회원 간 친목과 단합의 계기가 됐다.

/정소민 기자

## 정읍도정공장, 시설 위생 품질관리 '으뜸도정공장' 선정

## 정부양곡 품질향상 앞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지원장 김민욱, 이하 농관원 전북지 원)은 16일 정부양곡 품질 향상을 위 해 추진한 으뜸도정공장 선정사업 결 과, 정읍도정공장(대표: 안신)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북 소재 정부관리양 곡 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시설·위생· 품질관리 등 현장평가와 도정도 씨라 기·피해립 등 품위평가를 거쳐 진행

정읍도정공장은 최신식 기계설비 와 청결한 작업환경, 균일한 도정 품

질, 체계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 해 높은 점수을 받았다.

농관원 전북지원은 이와 관련해 정 읍도정공장에서 '으뜸도정공장 현판 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관원을 비롯해 전 북도청, 정읍시청, 대한곡물협회 전북 지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읍도정 공장의 성과를 축하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민욱 지원장은 "정읍도정공장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위생적인 도정시스템으로 정부양곡 의 품질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축 하의 말을 전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농협, '농심천심' K-라이스페스타 연계

## 브랜드히트상품개발 박람회 등 지원…전북 로코노미경쟁력제고

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구경브랜 다. 드 간담회'를 열고, 전북 로코노미 경쟁 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경브랜드 참여 농 축협 9개소 책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핵심의제는 △'25년 전북구경 브랜드 사업 마무리 계획 점검 △농심 천심(農心天心)운동 연계 실천방안 구 체화 △K-라이스페스타 연계 방안 논 의 등이다.

특히 '농부의 마음이 하늘의 뜻'이라 는 취지의 농심천심 운동을 구경 브랜 드 메시지·패키지에 일관되게 녹여 소 비자 공감형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예

또 전북농협은 참여 농축협 9개소와 함께 브랜드 히트상품 개발, 대형 식품 박람회 참가, 신규 온라인 채널 입점 등을 통해 상품화·판매·마케팅 등 사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15 업전반 원스톱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

> 참여 농축협 9개소(상품)는 전주(쌀가 공품), 공덕(고구마가공품), 군산원예(짬 뽕라면), 대성(땅콩), 동김제(떡볶이), 익 산(찹쌀떡), 임실치즈(치즈&요거트), 해 리(소금) 등 이다.

이정환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 구 경브랜드 활성화는 농심천심운동의 핵 심과제입니다"며 "앞으로도 전북 농업 인의 땀과 정성이 깃든 농산물가공품에 브랜드 가치를 더해 소비자에게 신뢰와 감동으로 다가가도록 전북농협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은 지난 15일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전북 구경브랜드 간담회'를 열고, 전북 로코 노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행과제를 논의했다.

북 농식품 상품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는 행위인 구경을 통해 완성도 전북 구경(9慶) 브랜드 지원사업은 전 높은 히트상품 9가지를 발굴해 축하를

받겠다는 전북농협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다.

/정혜민 기자

# 가스공사업협의회-전북도, 군산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 노후보일러·배관교체등 4천만원 규모 사업 추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 의회(회장 김영태)와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유제영)는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 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과 함께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과 학생 취약계층 가정 의 가스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총 4천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은 지역 내 노후 가스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취약계층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에서 지 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 의 일환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노후 보일러 및 배관 교체, 가스타이머 콕 설치, 가스 공 급시설 신설, 안전점검 및 시설 보완 등 군산지역 사회취약계층의 노후 가스시 다. 설 개선을 위해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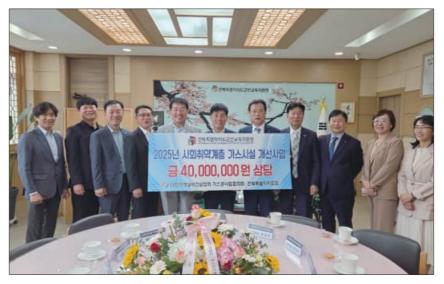
본 행사에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김영태 가스공사업협의회 회장, 유제영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전북특별자치 도군산교육지원청 이성기 교육장을 비 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 은 사회취약계층 및 학생 취약계층 가 정의 가스안전 개선사업 추진 방향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김영태 회장은 "이번 지원이 취약계 층과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 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스공사 업계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반산업 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유제영 회장은 "회원사들의 기술과 역 량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사 업"이라며, "협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

이성기 교육장은 "협회의 지원과 관 심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가스공사업협의회와 전북도회는 전북도군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내 취약계층 가정의 가스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도 안 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사업은 2023년부터 3년

지역주민 모두의 안전의식 향상에 큰 동안 약 1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회 취약 계층의 가스시설을 개선해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정혜민 기자

#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안정 정착' 모색

## 청년창업농가방문 안정 지원책 등 의견 나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 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 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5일 전남 영 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재배해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에 서 무화과가 재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 농장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 농,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꾸준히 제 고소개했다. 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법과 생육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

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농촌진흥청 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개별 스마트팜 기술을 골 라 적용하거나 묶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위해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개발해 효

이 기술이 보급되면 스마트팜 환경 관 이 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스마트팜 리지능화, 농작업자동화, 에너지 최적화 를 구축해 작물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환

경 관리, 작물 생육 자동 계측, 병해충 예 찰과 진단, 에너지 모니터링 기술 등을 상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귀농인, 청년창업인, 초 보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우수 농가와 비 슷한 수준으로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높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APEC 정상회의 비상체계 유지

현장 안전점검 진행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 다. 는 15일 경북 경주시 일대에서 아 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로 예정된 정상회의 동안 국내외 주요인사와 방문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전기안전공사는 △행사장 내·외 부, 회의장·숙박시설 전기설비 상

태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급 대응 체계 확인 등을 진행했

또 정상회의 동안 APEC 종합상 황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요 시 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위한 현장 설을 대상으로 24시간 비상출동체 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 은 "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마 무리될 수 있도록 행사 전까지 빈틈 없는 현장점검과 선제적 안전관리 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정혜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서울성모병원, 장애정도심사 협력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이용 협약 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장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원장 이 지열)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보 요청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된다.

원인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우편 으로 수신해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이러한 절차가 가 한층 효율화돼, 국민의 불편을 줄이 전자화되면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과정이 크게 간소화되고, 민원인 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

또 공단은 국내 5대 의료기관인 서울 성모병원과 협약을 계기로, 동일한 전 정도심사에 필요한 의료자료를 보다 신 산시스템을 사용하는 가톨릭중앙의료 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16일 원 산하 7개 병원과 협력도 확대할 계

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약 23만 건의 장애정도심사를 통 해 15만여 명을 신규 등록하고 있다"며 완자료를 서울성모병원에 전자적으로 "이번 협약이 국내 최대 의료네트워크 를 가진 병원과 협력인 만큼, 국민이 더 그동안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는 민 욱 편리하게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지열 서울성모병원장은 "이번 협약 을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진료정보 교류 고, 보다 신뢰성 높은 장애정도심사 체계 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 전북대병원,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인식 제고

## 지역 병의원 의료진 대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연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전 북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5 전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연수강좌' 를 개최했다.

연수강좌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보건 위기로 대두되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 제고와 올바른 항 생제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 생제 사용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과 전북대병원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다 다. 양한 직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끌었 다.

적절한 항생제 변경 △해외 의료기관의 ASP팀 운영 사례 등으로 각 분야의 전 북대병원 교수진의 전문 강의가 이어졌 다.

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다양 한 사례와 고민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 간이 마련됐다.

김인희 진료부문 부원장은 "항생제 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이 주관한 이번 성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 가 직면한 공중보건 과제"라고 말했다.

또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올바른 항 하고, 지역 의료진이 함께 해결방안을 이날 행사에는 전북 지역 병원 의료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

양종철 병원장은 "전북대병원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항생제 내성 대응 강좌 내용은 △성인·소아 초기 경험 과 적정사용 관리체계 구축에 선도적 적 항균요법 △배양검사 결과에 따른 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이 전북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2025 전북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연수 강좌'를 개최했다.

회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책임 있

이어 "이번 연수강좌를 계기로 지역사 는 의료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조달청 '레미콘 제조현장 품질점검'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16일 위해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 익산시에 소재 (유)토석산업(대표 김병 다. 찬)을 방문해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 의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진행했으며 △품 질 관리 실태 △계약규격 준수 여부 △ 저한 품질점검을 당부했다. 배합비율 확인 등 레미콘의 품질확보를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레미콘 은 건축물의 안전성에 직결되는 중요 이번 점검은 KS 기준에 따라 생산공 자재로 생산공장부터 납품현장까지 철 저한 품질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철

/정혜민 기자

5

# 전북지역 성범죄 수사 받는 교원 73%, 학교에

## 김영호 의원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 직위해제 처벌 아닌 예방조치"

전북지역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 는 교직원 중 73%가 교사 직위를 유지 한 채 학교 현자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 인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 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 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 터 올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



655명 중 289명 위해제 조치가 이 뤄지지 않았다.

올해만 놓고 봤 을 때, 절반 이상 (57%, 76명 중 43

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 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

은 매년 하락 추세다.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로 낮아 (44%)에 대해 직 졌고, 올해는 43%까지 떨어졌다.

>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27%), 인천(32%), 울산 다는 비판이 나온다. (33%) 순이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 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 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 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 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 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분리 조 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 1형 당뇨 관리기기 포함 1인당 최대 5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난치병 학생 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범 위를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학생 가운데 1형 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 부 지정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앓는 난치병 학생이다.

2025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담한 1형 당뇨 관리기기 및 치료비이며 본인부담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 (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의 차액과 식대 등이 해당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달 25일까 지 치료비 지원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춰 재학 중인 학교 또는 도교육 청 문예체건강과로 직접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 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 을 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우리 교육 청은 난치병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 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 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대, 온라인 통해 대학원생 맞춤형 취업 지원

## 맞춤형 채용정보 등 제공 외국인 유학생 지원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원생 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지 원하기 위해 '2025 JBNU-G 대학원생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내년 1월 31일까 지 운영한다.

취업 정보를 접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의 이력서용 사진으로 변환하는 기능 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맞춤형 채용 공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 고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평소 유료로 운영되는 인성·역 량 진단검사를 전북대 대학원생에게 무 료로 지원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생 모두에게 맞춤형 채용 정보를 지원 돕는다.

또한 온라인 취업자료실을 통해 이력

채용관에는 대학원생 채용에 특화된 기업 정보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전용 채용 공고도 마련해 내・외국인 대학원

아울러 10월부터 12월까지 취업 특강 이번 박람회는 대학원생들이 손쉽게 서 작성 가이드, 일반 사진을 정장 차림 과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도 추가 운

영해 현장감 있는 진로 탐색과 구직 활 동을 돕는다.

대학원혁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진로 를 모색하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기 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대학원생 맞춤형 지원 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

/최성민 기자

# 우석대 '청년, 지역의 미래' 전략 발표회 개최

## 김관영 도지사, 특강 통해 청년 중심 지역혁신 강조

주캠퍼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 으로 '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2.0' 미래 전략 발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북형 청년 중심의 지역혁신 모델을 전략화하고, 청년 기반의 지역혁신 모델 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

략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16일 전 발표회는 권형남 한국사회적기업학회 이사장의 환영사와 김관영 전북특별자 치도지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도 축사를 전했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 접 제안한 지역혁신 아이디어와 정책들

책 제안과 글로벌 및 지역산업 연계 전 강을 통해 "청년의 미래는 지역의 미래 과 글로벌 전략도 함께 공유됐다. 와 직결된다"며 "전북 지역의 청년들이 박노준 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지역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 중심의 지역혁신을 통해 전북의 미래 고 강조했다.

또한 유희태 완주군수와 이경윤 전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북도는 적 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발표회에서는 청년들이 직

표회는 산학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 도의 특별한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특 이 소개됐으며, 프로젝트의 국제적 확장

박노순 종상은 "이번 발표회는 정년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관 협력 생태계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는 "청년들이 지 내 '청년 허브' 제도화에 대한 중요한 논 역혁신을 선도하고, 전북이 미래 성장 의의 장이 됐다"며 "글로벌 전략 연계를 통한 지역 산업의 확장과 함께 향후 전 북 지역의 청년정책이 더 고도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초등생 동요 부르기 대회' 18일 개최

###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초등학생들의 순수한 마음과 맑 다. 은 목소리가 가을을 수놓는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18일 전주대학교 리사이틀홀에서 '2025년 전북 초등학생 동요부르기 대회(본선)'를 개최한다고 16일 밝

이 대회는 도내 초등학생들의 음 악성 감수성과 긍정적 자이를 형성 하고,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초등 음악교육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개최한다.

본선 무대에는 독창 부문 1~2학 년, 3~4학년, 5~6학년에서 각각 10 팀씩 30팀과 중창 부문 10팀 총 40 팀이 참가한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40팀은 각자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음악으 로 소통하는 시간이 가질 예정이

초등음악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 성된 심사위원회는 호흡 및 발성, 리듬 및 음정, 표현 및 태도 등을 심사해 수상팀을 선정한다.

각 부문별 금·은·동상에는 전북 특별자치도교육감상을, 장려상에는 초등음악연구회장상을 수여한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전 북 초등학생 동요부르기 대회가 학 생들이 순수한 감성과 음악적 재능 을 꽃피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예술활동을 통해 잠재적 소질을 발견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원광대학교 대학본부에서 지역혁신 전 주기 인재양성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선취업 계약학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선취업 계약학과 운영

## 원광대㈜대두식품 등 6개 기관 업무협약체결…인재 양성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원광대 학교 대학본부에서 지역혁신 전 주기(全 周期)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선취 업 계약학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별자치도청, 원광대학교, 전북상공회의 소협의회, ㈜대두식품, 국가식품클러스 터입주기업협의회 등 6개 기관이 함께

업→지역대학 후학습(일학습병행)→지 역정착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직업교육

성장경로'구축과 농생명·바이오 전략산 업 분야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계약학과 개설 과 행정 지원을 총괄하고, 도청은 운영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지역 정주 빙 안을 마련한다.

원광대는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이번 협약에는 전북교육청과 전북특 을 운영하며 계약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산업체는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지원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 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자신의 역량 협약은 직업계고 졸업→지역기업 취 을 펼쳐 지역에서 정주까지 이어지는 현 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약속



안쓰는 조명 소등하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멀티탭 끄기!〉



점심시간 모미터 끄기!



서 △익명소(益命所): 운명을 보다

△마룡 종이접기 대회 △경축! 익산

돌잔치 등이다. 이름만으로도 흥미

를 끄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현장 참여

가 가능하다. 당일 참여자와 순위권

자에게는 팀별로 마련한 상품을 증

이번 익산 꿀잼데이는 이러한 시

민 참여 프로그램의 결실로, 그간의

노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민 아이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이 만든 익

산 꿀잼데이는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체가 돼 기획하고 운영하는 진정 한 시민 축제"라며 "시민들의 빛나

는 아이디어는 익산의 일상을 즐거

움으로 바꾸는 원동력인 만큼 시민

이 직접 만드는 문화도시 사업을 확

/익산=최준호 기자

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어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어가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정할 예정이다.

## 정읍 학교 밖 청소년들, 특별한 '수학여행' 떠난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만의 길 을 걷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추억 여행이 마련된다.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오는 21 일, 22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 군산 과 서천으로 '2025년 꿈드림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밝혔다.

이번 수학여행은 검정고시 준비나 자격 증 취득 등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잠시 쉼표를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래 친구 들과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통해 건전한 여 가문화를 경험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 록 돕는 것이 목표다.

이날 청소년들은 군산과 서천 일원을 방 문해  $\Delta$ 선유도 명사십리 해변 체험  $\Delta$ 서천 국립해양생물지원관 관람 △서천스카이워 크 및 송림산림욕장 체험 △브라운핸즈 송 림동화 관람 등 다채로운 관람과 체험활동 을 접할 예정이다.

이번 수학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 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청소년 여행지원 사 업에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참가 청소년들에 대한 중식비와 체험비를 무료 지원받고 교통비, 보험료 등은 시 지원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서로 협력 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보리·밀 등 맥류 적기 파종·종자 소독 당부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는 보리, 밀 등 맥류의 안정 생산을 위한 적기 파종과 종자 소독을 16일 당부 했다.

센터는 보리와 밀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 작되기 전에 본잎이 5~6개가 돼야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다면서,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파종 시기 가 7일 정도 늦춰졌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 지역의 파종 적기는 10월 하순~11월 상순이다.

만약 맥류를 일찍 파종하면 겨울을 나기 전에 줄기 안에서 이삭이 자라버려 냉해를 받기 쉬우며, 너무 늦게 파송하면 싹트는 시기가 늦어져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로 얼어 죽거나 생산량이 떨어지는 만큼 적기 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종량은 10a(300평)에 16~20kg이 적당 하며, 파종 시기가 늦어질 경우에는 양을 20~30% 늘리는 것이 좋다.

박용우 기술보급과장은 "보리나 밀을 재 배할 때 수확량 감소의 주원인은 동해나 습 해, 병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기 파 종, 종자 소독, 배수로 관리 등을 꼭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해수부, 아동양육시설 일맥원에 성금·기부 물품 전달

군산시는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본점과 함께 군산시 아동양육시설 '일맥원'을 찾아 성금과 기부 물품 500만 원 상당을 16일 전 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강임준 시장, 해양수산부 홍래형 수산정책실장, 신학기 수협은행장 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시설 운영상황과 아동들의 생활 현황을 청취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 하기 위한 성금과 기부 물품을 전달하며 격 려했다.

성금과 기부 물품은 해양수산부와 수협 은행 본점에서 마련했으며,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한 정부 주관 지방상생 자매결연 사 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양수산부와의 상 생협력이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경제 활 성화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공공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 '시민화합대축전' 열기 이어가

## 공연·강연·전시 할인행사 등 도심 곳곳 축제 분위기

익산시 '시민화합대축전'이 반환점을 돌며 도심 곳곳이 흥겨운 축제 분위기 로 물들고 있다.

익산시는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 년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시민들이 일 상에서 문화와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시 민화합대축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민화합대축 전은 지난 2일 시민화합가요제를 시작 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 최하며 화려한 개막을 알렸다.

특히 지난 3~5일 열린 마한문화대전 과 KBS전국투어콘서트는 궂은 날씨에 도 2만 3,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하며 익산의 문화 저력을 보여줬다.

시는 시민화합대축전 기간 지역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은 10월 한 달간 충전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충전 인센티브 가 모현공원에서 진행된다. 율을 13%로 조정했다.

또 익산 전역 13개 농협하나로마트에 서는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지점별로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을 9%에서 최 대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가정의 장 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있다.



익산시는 이리시·익산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해 10월 한 달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 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민화합대축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익산시>

시민화합대축전은 10월까지 다양한 리고 있다.

우선 매주 금요일 모현공원, 유천생 태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에서는 익산시 립예술단의 상설공연이 펼쳐져 시민들 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 사한다.

또 오는 18~19일에는 '반려동물 문화 축제 및 제19회 익산 FCI 국제 도그쇼'

21일에는 김미경 강사가 '가족사랑 대화법'을 주제로 시민 강연을 펼치며, 백제왕궁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23일부터는 마동공원 익산생활문화 다. 센터(수림재)에서 민간기록물 수집 전

시회가 열려, 시민들이 직접 수집한 문화 행사와 이벤트가 시민들을 기다 생활문화 자료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 리가 마련된다.

> 시민화합대축전의 피날레는 오는 24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 '천 만송이 국화축제'가 장식한다.

가을 하늘 아래 피어난 국화꽃이 도 심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시민화합대 축전의 대단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화합대축 전이 반환점을 돌아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청 광장, 자활생산품 판매 '북적'

시민이 만드는 '익산 꿀잼데이' 개최

시민 아이디어 체험 공연 선봬

익산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

하는 문화축제가 미륵사지에서 펼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

터는 오는 18일 미륵사지 일원에서

'시민이 만든 익산 꿀잼데이'를 개최

이번 축제는 문화도시 익산의 대

표 시민참여 플랫폼인 '문화도시 삼

삼오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

됐다.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100여

개의 아이디어 중 심사를 거쳐 선정

된 20여 개 팀이 모여 다양한 체험

행사는 익산의 대표 문화유산인

미륵사지를 배경으로 오전 10시부

주요 프로그램은 △시니어 보드

게임 대회 △가면 축제 '백제 타임

슬립' △닭벤져스 최강의 닭을 찾아

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한다고 16일 밝혔다.

과 공연을 선보인다.

쳐진다.

저소득층 자립 기반 다져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착한 소비' 의 장이 16일 정읍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렸다.

전북 6개 지역자활센터 소속 사업단 과 자활기업들이 정성껏 만든 우수 생 산품을 한자리에 선보인 '2025년 자활 생산품 및 반려동물 시·군 순회장터' 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을 이뤘다.

전북광역자활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 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고, 이를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 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터에는 생활용품·패브릭 공 예품 같은 수제품부터 누룽지·생선구 이 ·베이커리 등 맛깔스러운 먹거리까

지 다채로운 상품이 판매됐다.

특히 올해는 반려동물 인구를 겨냥 해 수제 간식과 습식사료 등 펫용품도 처음 선보여 방문객들의 큰 관심을 끌 었다.

정읍지역자활센터 역시 특색있는 상 품으로 힘을 보탰다.

카페보네사업단은 올해 신메뉴인 쌍 화차를, 영농사업단은 갓 수확한 상추 를 선보였고, 세차사업단은 세차 할인 권을 판매하기도 했다. 자활기업인 샘 골식품가공센터의 백미 누룽지 또한 큰 인기를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터를 통해 자활 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시민 들이 즐겨 찾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 길 바란다"며 참여자들을 격려하고 전 북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응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기업인과 함께하는 '군산 타운홀미팅'

## 기업 지원 정책 의견 수렴 등 산업 발전 소통

군산시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 취하며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업인과 함께하는 군산시 타운홀미팅'을 16일 오후 3시 한국산 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개최했 다.

이번 타운홀미팅에서는 관내 숭소 기업 대표, 관계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을 모두가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등 이 참석했다.

운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군산시의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 다.

차전지 폐수처리장 △ 군산조선소 등 지역 현안사항과 다양한 분야에서 기 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향후 군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과 기업인들은 기업 며 "앞으로 군산시에서 기업인들을 위 다.

한 정책을 더 확대해 주길 바란다"라 고 소감을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기업인들 의 생생한 목소리가 군산시 산업 정책 군산시는  $\triangle$  RE100산단 지정  $\triangle$  이 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된 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지속적 인 소통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시는 이번 타운홀미팅을 기점으 이번 미팅에 참석한 기업관계자는 로지속적인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추 "기업 경영 현상에서 느끼는 어려움 진하고, 현상 중심의 행성을 통해 지 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라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시민 주도 배움 축제 열려

군산시가 오늘부터 18일까지 2일 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 일원에서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한마당'을 개 최한다.

군산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주민자 치프로그램 경진대회·평생학습 성과 발표회·K-POP 공연 등 풍성한 무대 행사와 다양한 체험을 준비해, 시민 누 구나 평생학습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 하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개막식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직 접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 한 '평생학습 주제곡'도 공개될 것으로 보여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산시는 인공지능(AI)이 '배움'·'성 장'.'나눔'이라는 평생학습의 핵심 가치 를 음악으로 재해석한 이번 곡이 교육 과 인공지능의 만남을 통한 새로운 가능 성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홍순 교육지원과장은 "평생학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배움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도전, 변화의 과정들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배우고 성장해 온 시민들의 이 야기를 함께 나누고, 배움의 열정을 확 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첨단 관수시스템 축산 농가 '주목'

## 날씨 걱정 없이 연중 사료작물 안정적 생산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에도 고 품질 사료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정읍에 도입돼 축산 농 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응 사료작물 안전재배 단지육성' 시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현장 평가회 를 열었다.

가회에는 농업기술센터·전북특별자치 기가 핵심이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와 지역 농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뭄 대응 국 최초로 '자유방목형 한우 동물복지' 기술이 적용된 목초지를 직접 둘러보 인증을 받고 100% 목초만으로 소를 키 고, 향후 기술 확산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상고온 등 기후변 날씨 걱정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고품 화에 맞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 질 사료작물을 생산해 소에게 먹일 수 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있게 돼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만족감을 총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 2개 농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16일, '가뭄대 가에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신기술 을 보급했다. 스프링클러 4대로 2ha에 은 가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료작물 달하는 넓은 목초지에 자동으로 물을 뿌리는 관수시스템과, 수분 20% 이내 북면의 시범사업장에서 열린 이날 평 의 고품질 건초를 생산하는 열풍 건조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

특히 사업대상자인 손영수 농가는 전

우는 선도 농가다.

손 씨는 "새로운 관수시스템 덕분에

표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 생산 기반을 다진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토양 분석 지원 등을 통해 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신청

## 상반기 미신청자 대상 20~31일까지 접수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 못한 농업인을 배려한 조치다.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농 30만 원씩 지급된다. 업인 또는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업인 이다. 또한 경작 면적이 1,000㎡ 이상 익산시는 농민공익수당 하반기 추가 이고, 전전년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급할 계획이다.

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인 경영체는 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시는 접수가 끝나는 대로 자격요건을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한 후 수당을 지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 올해는 제도 요건이 완화돼 도내 거 치를 인정하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 주 기간과 경영체 등록 요건이 기존 2 인들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 이번 추가 접수는 영농철 바쁜 일정 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지급 기준도 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농촌 으로 당초 신청 기간 3~6월에 신청하 기존 농가 단위에서 개별 농업인 단위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학생승마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정읍시가 오는 22일까지 지역 초· 중·고등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학생 하며 정서적 안정을 찾고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쳐 이론 수업부터 말과 친해지기, 말 끌기, 기초 승마까지 체계적인 강습으 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 로 진행된다. 경험이 풍부한 '웨스턴스 정되며, 결과는 23일 같은 누리집에서 프링스'에서 운영하며, 모든 참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의무적으 로 가입된다.

특히 시는 더 많은 학생의 참여를 위 해 본인 부담금을 기존 30%(9만 6000 승마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원)에서 20%(6만 4000원)로 더욱 낮 이번 사업은 단순한 스포츠 강습을 넘 췄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 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동물과 교감 문화가정 등 사회공익승마 대상 학생 은 전액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오는 22일까 '학생승마 지원사업'은 총 10회에 걸 지 '호스피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체험 은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운영될 예정 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 가치 재조명…국내·외 거석기념물 연구성과 보존관리 사례 비교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고인돌, 갯 벌'의 일환으로 고창군이 고창군 세계 유산보존협의회(위원장 박현규), 국가 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 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규훈)와 함께 16일 오전 고창웰파크호텔에서 '세계 유산 고창 고인돌의 현재와 미래-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외 거석 기념물의 최신 연구성과와 보존관리 사례를 함께 비교 논의하는 자리로 마 터)' △'영국 스톤헨지의 최신 조사연구 련됐다.

이영문 소장(동북아지석묘연구소)은 '고창 고인돌 유적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의 기조강연에서 "세계문화유산 에 등재된 선사시대 유적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고인돌 유적 은 희귀성, 역사성 그리고 특수성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등재 의미를 가 진다"며 "유적지 관리와 함께 전시공간 과 체험공간 조성을 통한 지적 욕구를 제공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편 안함과 친밀감이 있는 유적지로 가꾸 과가 발표됐다. 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선 △'세계유산 고 창 고인돌 유적의 조사연구 성과와 향

탄소중립 실현 향한

수소도시 청사진 완성

부안군은 16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

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

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이날 보고회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경제산업국장, 관광복

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성

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

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과 전북테크노

파크, 현대건설, ㈜유신 등 용역 수행기 했다.

다.

했다.



후 과제(정다운·박인영, 국립완주문화 유산연구소)'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의 보존관리 현황과 향후 활용방 안(장충희,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헤더 스비어, 잉 글리쉬 헤리티지)' △'인도 우산돌의 최 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아 룬 말릭, 인도 문화부 고고학연구소)' △'인도네시아 사부섬 고인돌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리 현황(랑가 아딧탸 다츨란, 인도네시아 가자마다 대학교)', △'일본 오유환상열석 거석기 념물의 최신 조사연구 성과 및 보존관 리 현황(사이먼 케이너, 영국 세인즈버 리 일본문화예술연구소)' 등의 연구성

이후에는 이영문 소장을 좌장으로, 조진선(전남대학교), 김규정(전북문화 유산연구원), 고일홍(서울대학교 아시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 MP 확정

군이 추진 중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

소 생산기지와 연계해 지역 내 수소 생

연료전지 발전을 통한 주거단지 전

기·열 공급, 수소 교통망 확장 등 통합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했 형 수소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핵

심 사업이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부안 수소열 공급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산-저장-이송-활용 체계를 구축하 및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와의 연

이번 용역은 ㈜현대건설과 ㈜유신이 는 대한민국 대표 수소도시로 도약할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했으며, 전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안군은 새만금

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 과 연계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통

보고회에서는 △수소 공급 인프라 구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

아연구소), 윤호필(상주박물관), 윤덕향 (前 전북대학교), 최완규(원광대학교) 등 거석기념물 전문가들과 발표자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국제학술 대회가 고창 고인돌의 세계사적 가치 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 한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 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고창이 세계 유산 도시로서 지속 발전하는 데 큰 역 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규 고창군 세계유산보존협의회 위원장은 "'2025 세계유산축전-고창 고인돌, 갯벌' 가치 확산 프로그램으로 준비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고 세계적인 거석기념물 유적로 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기 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전북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계 방안이 집중 논의되며, 지역 내 자립

적 순환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최종 보고

회를 통해 부안이 수소경제를 선도하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전환의

/부안=신상수 기자

적 청사진이 제시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인군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부안군, 전북 유일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

지역청년 지원 분야 우수상

부안군이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 치경영대전에서 지역청년 지원 분 야 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 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은 행 정안전부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 하고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가 후 원하는 전국 단위 평가로,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매 년 개최되며 부안군은 전북도 내에 서 유일하게 수상의 영애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부안군이 꾸준히 추 진해온 청년정책의 우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전북 최초 '부안형 지역정 착 청년일자리 사업' △부싯돌 프로 젝트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넓혔으며, △전국 최초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전북 최초 '청년 월세' 지원으로 생활 안 정 기반을 마련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수상은 부안형 청년정책의 우수성과 실효성 을 인정받은 성과이자 청년과 함께 만들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 로도 청년이 머물고 성장할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부안군의회, 구성결의안 등 20여 건 심의・의결

제365회 임시회 폐회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6일 제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5회 임시회 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 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 는 김광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현 기 의원이 선임돼 2025년 행정사무감 사를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강세 의원은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침체된 골목경제 회복

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

이한수 의원은 '농어촌지역 지역사 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 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 구했으며, 박태수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 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 며 무인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전 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제 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 참가

축  $\triangle$ 수소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triangle$ 수 다.

소 기반 교통수단 확대 △주거단지 내

## 공감대 형성·경험 공유 등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

일부터 3일간 베트남 후에시에서 개최 한 '제5차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OWHC-AP) 총회'에 참가해 세계유산 도시간 공감대 형성과 네트워크 강화 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위한 거주적합성'이라는 주제로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례 발표를 통해

된 이번 총회에는 7개국 15개 도시대표 고창의 세계유산을 널리 알리기도 했 단, OWHC 본부 및 지역사무처 관계자 다.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은 지난 14 아태지역사무처 활동 보고, 국제 학술 심포지엄, 회원 도시별 사례 및 정책 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세계유산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와 인근 매산마을의 공생프로젝트 보에도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유산도시 첫날 개막식으로 시작한 이번 총회는 기구 아태지역 총회를 통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품격을 높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지과 고 공유 등 각 세계유산도시의 경험과 비 창갯벌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 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고창의 세계 이번 총회에 참석한 김영식 고창부 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세계유산도시협 군수는 세계유산인 고창 고인돌 유적 의회 회장으로서 한국의 세계유산 홍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 대산면 상수리나무숲, 우수조림지 선정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상수리나무 보호 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 숲이 최근 산림청 주관 '2025년 우리 가 키운 우수조림지 평가'에서 우수 조림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침엽수 단순림으로, 하단부에 묘지와 마을이 인접해 산불 발생시 대형산불 로 확산될 우려가 높았다.

치를 동시에 갖춘 내화성 활엽수인 상수리나무를 심었다. 상수리나무숲 은 산불확산 속도를 늦추고 시설물

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이 주관하는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는 올해 7 회째를 맞이했으며, 우수조림지를 선 대산면 상수리나무 조림지는 기존 정·홍보하면서조림사업 방법의 다양 화와 사업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우수 이에 고창군은 경제성과 생태적 가 시례를 적극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산 림경영을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확보 시민 공감대 확산

##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희망축제환경정화활동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위원장 강 병진)는 16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일 정화활동'을 개최했다.

롯해 서백현 김제시의장 및 시의원, 새 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위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제 2호 방조제의 김제시 관할 결정 10주 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 년과 2024년 8월 만경 7공구 방수제, 동을 하며 김제 관할 구역에 대한 깨끗 2025년 2월 동서도로, 4월 스마트 수변 도시 등의 김제시 관할 결정을 기념하 식 함양을 위해 노력했다. 원에서 '새만금 김제 희망 축제 및 환경 며, 새만금은 김제의 희망이자 미래로 향후 새만금 신항만 등 관할권 확보를 이날 축제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미래와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를 시 마련됐다.

> 희망 축제에 앞서 새만금 미래 김제 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연대와 김제시 공무원 200여 명이

이번 축제는 지난 2015년 행정안전 모여 축제 현장인 새만금 바람쉼터를 비롯한 김제 관할인 제2호 방조제 일대 한 김제시 이미지 제고와 시민 책임 의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에서 열 린 이번 희망 축제가 새만금의 희망찬 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직원 회계실무 교육 '호응'

부안군은 15일 군청 대강당에서 회 접근이 어려운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계분야 직무능력 향상과 예산집행 투 명성 확보를 위한 2025년 직원 회계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회계분야 전문강사인 김재곤 강사님 항 등을 사례 중심과 질의 응답식 방 다"라고 말했다. 법으로 진행해 평소 어려웠던 분야에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재무과장은 "이번 교육은 직 원들의 실무 이해도와 적용 역량이 2024년 회계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한층 높아지는 기회가 됐다"라며 "앞 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 을 재초빙해 계약 및 회계 관련법규 의 역량 강화에 힘씀으로써 예산집행 안내부터 주요 지출사례, 감사지적 사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겠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22일까지 '도심속그린마루 생물다양성탐사대'참가자모집

전북 고창군이 오는 26일 고창그린마루· 자연마당 일원에서 '도심 속 그린마루 생물 다양성 탐사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초등학생과 가족 단위 참가자를 대상으 로, 전문가와 함께 식물·곤충·양서·파충류 등을 직접 탐사·관찰하며 자연 속 생물다 양성의 가치를 배우는 체험형 생태교육 프 로그램이다.

탐사 외에도  $\triangle$ 생태공예  $\triangle$ 황토염색  $\triangle$ 곤충·식물 세밀화 그리기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마련돼 있다.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기며 환경의 소 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 신 청은 22일까지 온라인 포스터 내 QR코드 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탐사대는 도심 속 에서도 자연과 교감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체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교육적· 생태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모양성제 3차 추진위 "대표 문화축제 준비 총력"

고창군은 지난 15일 군청 2층 회의실에 서 '제52회 고창 모양성제 추진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신유섭 추진위원장 주재로  $\Delta$ 축제 추진 방향 △프로그램별 운영 방안 △범군민 홍 보 및 참여 확대 등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축제는 오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5일 간 고창읍성 일원에서 열리며, '답성놀이', 강강술래', '모양장터' 등 전통문화 프로그 램은 물론 'MZ 퀴즈 대격돌', '모양성 데모 헌터스 존', '성 쌓기 챌린지', '힘쎈 사람 선 발대회' 등 젊은 세대를 겨냥한 체험형 프로 그램도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축제에서는 고창읍성, 꽃정원, 전통예 술체험미을, 생태그린마루 등 주요 행사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탬프 투어가'가 마련된

하나의 공간에 머무는 축제가 아니라 고창 의 다양한 장소를 따라 이어지는 여정 속에 서 고창의 매력과 감성을 한층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신유섭 주진위원상은 "52년의 선통을 이 어온 모양성제가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 기는 대표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 원회가 소통하고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 상서면-부안소방서 화재 상황 가정 합동 소방훈련

부안군 상서면은 지난 15일 면사무소 청 사에서 직원 17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안소 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부안소방서와 연계해 직원 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가 각자 임무에 따 라 화재 현장 대피 및 화재 진압과 응급 환 자 이송을 하며, 실제 청사 내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모의 훈련 이었다.

또한 화재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 조치요령 등을 통 한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교육을 했으며, 훈련 후 소방서 관계자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채연길 상서면장은 "이번 소방훈련을 통 해 직원 스스로가 화재안전지킴이 뿐만 아 니라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평소 예방 과 교육훈련을 통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 예비창업자·3년 미만 기업 대상 공간·공용시설 무료 이용 혜택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 우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가 입주기업 기 간 만료에 따라, 입주기업을 11월 7일 까지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완주군에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또는 2022년 10월 15일 이 후 창업한 3년 미만 기업으로, 완주군 에 사업장이 있거나 입주 후 2개월 이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이면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 및 사회 적 기업 △새로운 창업 아이디어로 지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 비)기업 등이다.

기간은 2년이고, 1년 연장을 통해 최대 료로 이용할 수 있다. 3년까지 입주 가능하다. 보육실은 최종 선정 이후 상호 협의를 통해 배정된다.



완주군 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 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기업을 11월 7일까지 모집한 <사진=완주군>

공간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 직접 방문 또는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용시설(상상플래닛 카페, 세미나실, 회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창업보육센 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서 및 사업

선정된 기업은 경영활동을 위한 사무 계획서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 작성 후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

모집 규모는 최대 3개 업체이며, 입주 의실, 배움터 등)과 공용사무기기도 무 홈페이지(https://wj-changup.wanju. go.kr) 또는 완주군 창업보육센터(063-290-2487~8)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서 전국 청소년 모빌리티 레이싱 대회 열린다

## SW미래채움 전북센터 주관 행사 미래 모빌리티·AI 교육 체험의 장

남원시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서 'SW미래채움(전북) 전국 청소년 모 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SW 미래채움 전북센터와 대구센터가 공동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이 후원하는 를 직접 조립하고 코딩하여 장애물 레 채움전북센터를 개소해 AI·SW 교육과 행사이다.

첨단 로봇 기술이 융합된 종합 기술 축 제로 진행된다.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내 배드민턴장에 학생이 이번 대회에 접수했으며, 이 중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부 12개 팀(34명)과 중·고등부 10 빌리티 메이커스 레이싱 대회'를 개최 개 팀(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교육 부는 1일 과정으로, 중·고등부는 1박 2 확산 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일 집중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참가자 원시가 협력해 지역 청소년의 소프트 들의 수준과 집중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 체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싱 경기에 출전한다. 이를 통해 소프 현장 중심 강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2025 남원 국제드론제전 트웨어 코딩 역량뿐만 아니라 협업 능

with 로봇'과 연계해 미래 모빌리티와 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첨단 기술에 대한 총 22개 팀, 54명의 전국 초·중·고등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높이는 데

한편, SW미래채움사업은 과학기술 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 기회를 확대하 고 기초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 대회 참가 학생들은 팀 단위로 RC카 화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SW미래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피오리움,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전북 거점 선정

## '달빛버스킹' 연계 프로그램 선봬 감성형문화·관광도시브랜드강화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 디자인 진흥원이 주최하는 '공공디자인 페스 티벌 2025' 전라북도 6대 거점 중 하나 로 선정됐다.

올해 페스티벌은 '공존: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전국에 서 동시에 진행된다.

남원 피오리움은 거점 프로그램으로 시의 밤'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계해 운영되며, 남원이 보유한 감성 을 접목한 감정 기반 참여형 도시디자 한다. 인 프로젝트다.

기존 공공디자인이 공간의 미관 개선 인구 정책인 '누리시민 제도'와 결합해,



남원시 피오리움이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전북 6대 거점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사진=남원시>

'달빛버스킹, 감정의 빛으로 물드는 도 이나 편의성 중심이었다면, 이번 프로 정책과 디자인이 융합되는 실험적 구 젝트는 사람의 감정이 도시를 구성하 '공공디자인 실험, 도시를 감정으로 설 는 요소가 된다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 계하다'라는 취지 아래 운영된다. 본 프 한다. 참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 로그램은 남원시 관광 협의회의 RE- 고, 그것이 빛의 언어로 변환되어 도시 PLUS사업인 '별멍달멍 달빛버스킹'와 에 남게 된다. 이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시각적 기호가 아닌 도시와 시 형 야간 관광 자원과 공공디자인 실험 민 간의 정서적 인터페이스로 재해석

또한 본 프로그램은 남원시의 생활

조를 보여준다.

남원 피오리움 관계자는 "전북 거점 선정은 남원이 가진 감성형 도시 브랜 드와 시민들의 참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감정을 매개로 한 이번 실 험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남원이 감성 형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하반기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 학기당최대 200만원 차등 지원 인재 유출 방지·교육 기회 보장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은 민선8기 순창군 보편적 복지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대학 생활비와 주거비 지역 인재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 된다.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안정적인 된다. 교육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 순창군 옥천장학회가 하반기 대학생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 학년 2학기까지 최대 7학기이며, 4년제 을 두고 있다.

생(만 40세 미만)으로, △순창 관내 초・ 중·고교 졸업, △관내 중학교 졸업 후 관외고등학교 졸업, △고졸 검정고시 등 교육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합격 후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단,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점은행

특히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제 및 정규학제 초과 재학생 등은 제외

지원시기는 대학 1학년 2학기부터 4 초과 대학은 최대 7학기까지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순창군 출신 대학 재학 지원금액은 학기당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 주소지 관 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야 하며, 접수 시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순창=박지헌 기자

# 행복한 순치

순창군은 지난 15일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순창군>

## 순창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협약 체결

## 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맞손' 청소년 체험·육성사업 개발

년육성재단과 농어촌 지역 청소년 의 균형 있는 성장지원과 활동 활 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은 최영일 순창군수, 채명 숙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 장을 비롯한 양 측 관계자가 참석 한 가운데 군수실에서 진행됐다.

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성장 기회 를 제공하고, 지역 간 청소년 활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제 청소년 교류 및 탐방활동 △ 진로탐방활동, 대학탐방활동, 진로 순창군은 지난 15일 농어촌청소 드림캠프 등 청소년 체험활동  $\Delta$ 청소년 육성 및 지역발전에 필요 한 사업 연구개발 노력 등 다양한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채명숙 사무총장은 "지속적인 교류와 지 원으로 지역 간 격차 없는 청소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협약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 청소 을 계기로 순창군 청소년들이 지 역의 한계를 넘어 자신만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 완주 기업-주민 문화축제 '드라이브 인 페스타'

## 문화선도산단 사업 일환

지 3일간 완주 둔산공원 일대에서 지 역 상생형 문화축제 '2025 드라이브 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를 선사한다. 인 페스타'를 개최한다.

장 가까운 여행'을 주제로,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마련돼 체험형 축제로 꾸며진다. 완주 대표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축제 기간 동안에는 주민과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먹거리 부스, 완주 최 대 규모의 프리마켓, 다양한 체험 프 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메인 무대에서는 △행복완주산단 펼친다.

어울림 콘서트 △근로자 가족가요제  $\Delta$ 행복완주산단 라디오 주민DJ  $\Delta$ 완 완주문화재단이 오늘부터 19일까 주 플레이리그 E스포츠 대회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 모두

현장에는 오토아트존, 드라이빙존, 이번 축제는 '일상에서 떠나는 가 MZ마켓존, 아드레날린존, 키즈캠프 존 등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이

> 개막식은 18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별빛콘서트'에 서는 18일 송하예, 존박, 크로스오버 그룹 카르디오가 무대를 꾸미며, 19 일에는 가수 임창정이 피날레 공연을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천문과학관, 드론제전 현장 '과학 놀이터' 운영

## 전시·포토존·영화상영·만들기 등 (사이언스 싸이휠, 루체리움 사이언스

제드론제전 with 로봇' 기간에 맞춰 1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 전 56점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터 오후 6시까지 종합스포츠타운 수 영장 주차장에서 '남원시천문과학관 수 있는 만들기 체험도 마련된다. 특 과학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이 주관해 시민과 관광객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기며, 지역 과학문 화의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팝 등 체험전시 50종, 과학버스 3대

스쿨, 루체리움 스타카), 지름 9m 천 남원시 관광시설과는 '2025 남원국 체투영관 과학영화 상영, 지름 6m '달 풍선' 포토존과 천체·기상기후 사진

또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별체험으로는 별자리 머그컵 만들기, 우주 샌드아트 그리기, 행성 뱃지 만 이번 체험교실은 남원시천문과학 들기, 일반체험으로는 에어로켓 및 별 자리판 만들기, 행성 팔찌 만들기, 글 라이더 비행기 만들기, 외계인 마끄라 메, 드론체험 등이 진행된다. 현장에 는 천문과학관 홍보부스도 설치되어 현장에서는 플레이사이언스·싸이 '화홍산수 태양필터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조선 명필 '창암·추사' 특별전 개최

## 삼례문화예술촌서 내년 1월까지 주 상관면에서 거주하다가 작고했으

관에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명필 두 인물, 창암 이삼만(蒼巖 李三晚, 1770~1847)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 로 이름이 높았다. 횸, 1786~1856)의 예술세계를 한자리 재회'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완주군이 주최하고 미술관 솔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화 고미술전시로, 내년 1월 4일까지 진 행된다.

창암 이삼만은 평생을 전북 지역 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서 활동한 서예가로, 말년에는 완

며, 묘소 역시 완주 구이면 평촌리에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제1전시 자리한다. 그는 해서·행서·초서·대자 등 다양한 서체에 능했으며, 특히 초 서에서는 막힘 없는 '유수체(流水體)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 문신이자 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전 '창암 추사 서예가로 '추사체'를 완성하며 조선 후기 서예 예술을 대표했다.

이번 전시에는 창암 이삼만의 〈행 서첩〉, 〈유수체 병풍〉 등 33점, 추 사 김정희의 〈세한도〉 등 3점이 출 품되며, 특히 추사의 작품이 완주군에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드론제전서 '긱블' 창업자 청소년 토크콘서트

남원시가 1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남 원 종합스포츠타운 메인광장 야외 무대에 서 '긱블' 창업자 차누와 함께하는 청소년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도 전 정신과 창의성을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실제 창업자의 경험을 통해 도전에 대한 자 부심을 고취시키고, 첨단 AI 기술을 활용 창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는 '쓸모없는 도전은 없으니까'를 주제로 한 강 연으로, 차누 창업자가 자신의 도전과 실패 그리고 이를 통한 성장 경험을 솔직하게 공 유한다.

2부는 '도전에 대한 자부심'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토크콘서트로, 참가 청소년들이 창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도전의 의미와 가 치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3부에서는 AI를 활용한 '나만의 발명품 이미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된다. 참가자들 은 AI 기반 이미지 생성 웹사이트에 자신이 구상한 발명 아이디어를 입력하여, 시제품 이미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결과물은 행사 현장 내 포토존과 QR 갤 러리를 통해 전시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제22회 비봉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소통 화합의 장'

완주군 비봉면이 16일 비봉면생활체육공 원에서 '제22회 비봉면민의 날' 행사를 성 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 2부 민속·체육경기, 3 부 한마음 노래자랑 등으로 구성돼 면민 모 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한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 다. 군수 표창에는 △국쇠철 △김용순 △허 정자씨가, 군의장상에는 △박형희 △유순 상 △최쌍여씨가 선정됐다.

또한 면민 표창으로 △국봉호(면민의 장) △고판철(봉사상) △이석도(효열상) △김 봉구(장수상)씨가 수상했으며, 이외에도 △ 김경남(국회의원상) △국윤권(체육회 공로 상) △김인수(감사상)씨가 각각 표창을 받 았다.

2부 행사에서는 비봉면 체육회(회장 조한 용)의 주관으로 공굴리기, 줄다리기 등 전 통 민속놀이와 체육경기가 펼쳐졌으며, 3부 한마음 노래자랑에서는 각 마을 대표 주민 들이 무대에서 숨은 끼를 발휘해 행사장을 뜨겁게 달궜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수강생 모집 퍼스널컬러 전문가 등 이색 과정

순창군은 군민의 취·창업 기회 확대를 위 해 하반기 직업교육훈련 과정으로 △퍼스 널컬러 전문가 2급 과정 △큐브지도사 2급 과정 △웃음지도사 과정 총 3개 과정을 개 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군민들이 자신의 적 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퍼스널컬러 전문가 과정은 뷰티와 스타일링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반영한 자격 과정으로 최근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 으며, 큐브지도사 과정은 방과 후 지도사 및 교육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수강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웃음지도사 과정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요양원 등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자격증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에도 긍정 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 구나 가능하고 모집기한은 28일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순창군청 홈페 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경제 교통과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 하면 된다. /순창=박지헌 기자

## 무주군, 군민 '정신건강' 살핀다! 정신건강 인식개선 행사 진행

무주군이 '2025년 정신건강의 날(10. 10.)' 을 기념해 오는 24일까지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인식개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 혔다.

'마주해요(마주해요 나의마음, 주목해요 너의마음, 해소해요 우리함께, 요청해요 도 움을)'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 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16일 무주읍 반딧불 장터 공연장에서는 가수 '김가영의 트로트 공연' 과 마술, '셋두리' 버스킹 공연 등 '작은 음 악회'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마음건강 나무 꾸미기 체험', '전북 마인랜드를 활용한 자가검진'이 진행 됐으며 '마음안심버스'와 혈압·혈당 검진 등 '통합이동건강증진체험'도 관심을 모았

이지영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 은 "정신건강은 신체 건강과 더불어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행사 를 통해 주민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고, 정 신건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누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 장수군 천천면 작은도서관, 인문학 강연 '인간과 우주' 개최

장수군 천천면 작은도서관은 오는 22일 '인간과 우주,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문학 적 인간과 우주과학적 인간의 대화'라는 주 제로 인문학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10월 천천면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일환으로 아동부터 성 인까지 세대별 맞춤형 독서활동을 통해 주 민들이 책과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연은 22일 오후 3시부터 천천면 작은 도서관에서 열리며 장하열 강사와 이철국 강사를 초청해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의 존재 △인문학적 인간과 과학적 인 간의 관계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인간과 우 주의 의미를 탐구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문학과 과학을 융합 한 색다른 주제로 구성돼, 참여자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삶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 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인문학에 관심 있는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장수군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 화(063-351-3435)로 가능하며 선착순 마 감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정신건강의 날기념 '함께 걷는 가을 성수산' 행사 실시

임실군이 지난 15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 아 정신 재활시설 동행 종사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 날 기념 '함께 걷는 가을 성수산' 행사를 실시했다.

참여자들은 성수산 자연휴양림을 시작으 로 상이암까지 약 5km 코스를 걸으며 가을 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동행 회원 이〇〇 씨는"평 소에 자연 속을 걷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 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한결 가 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전했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행사가 많 은 사람들에게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 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 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진안군, 간판개선사업 공모 최종 선정

## 진안읍 중심상가 일원 국비약 2억6천만원 확보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에 최 종 선정됐다.

진안군은 지난해 공모에서 아쉽게 탈 락했으나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올해 다시 도전한 끝에 2026년도 사업 대상 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확보했으며, 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4 억 원을 투입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군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간판개선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지는 진안읍 중심상가 일원 으로, 진안읍 쌍다리에서 시외버스터미 널까지이다.

은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무 질서하게 설치된 간판 철거되고 군 대 표 컬러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정체성

이번 선정으로 국비 약 2억6천만원을 과 역사와 문화 등이 어우러진 디자인 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기대된다.

송형진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2026 년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 해당 구간은 읍에서 이동 인구가 많 로 기대된다"며 "주민협의체와 함께 지 역 정체성을 살린 간판거리로 조성하 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임실N치즈축제 반려 산업 홍보관, 큰 성과

## 강아지 입양 부스 운영

임실군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 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운영한 유기 동물 입양 및 반려 산업 홍보관이 관광 객들의 큰 호응 속에 가족 잃은 강아지 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는 데 큰 역할 을 해냈다.

군은 이번 축제 기간에 유기견 입양 부스와 임실군의 주력산업인 반려 산 업 홍보관을 운영한 가운데 총 21마리 의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며, 생 명 존중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축제 개막 첫날부터 유기 동물 입양 부스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입양 희망자가 예상 보다 많아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축제 기간인 5일간 진행된 행사는 당 초 입양 대상이었던 2개월령 강아지 14 마리는 행사 3일 만에 모두 입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임실군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6 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와 모견을 대상 으로 입양 홍보를 실시해 총 21마리의 였다. 유기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뜻깊



임실군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 기간에 유기 동물 입양 및 반려 산업 홍보관을 운영했다

은 자리가 됐다.

유기 동물 입양 부스에서는 어린이들 을 위한 교감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 리동과 사육동 등 2개 동 규모의 임실 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은 강아지와 직접 교감하는 법을 배우며, 쓰다듬기나 간식 주기 체 험을 통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직접 느 물 친화 도시 임실'의 위상을 한층 공고

군은 현재 100여 마리의 유기견이 보

호되고 있는 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해 총 20억 원의 사업비로 관 군 동물보호센터'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동물 보호·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반려동 히 할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작은 목욕탕' 문 활짝

##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면 혹서기 시설 보강 마치고 운영 재개

무주군이 여름철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무풍면과 설천면, 적상면, 안 성면, 부남면 작은 목욕탕의 운영을 재 개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대중목욕탕이 없는 면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 난 2001년부터 순차적으로 5개 면 지 역 행정복지센터 내에 목욕탕을 조성 해 운영 중으로, 7~8월(여름철 정기 휴 무)을 제외하고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 일까지 주 5일 남녀 요일 지정제로 운 영(09:00~17:00)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 을 위해 각 지역 작은 목욕탕들은 휴무 전 원, 65세 이상은 1천5백 원, 70세 이 설점검을 마치고 문을 열었으며 적상 면 단풍골 작은 목욕탕은 9월까지 시설 을 보강하고 10월 운영을 재개했다.

전기패널을 교체하고 에어컨을 설치하 는 등 편의시설을 보강했으며 급수 및



했다.

주민들은 "우선 가깝고 일반군민은 2 는 목욕비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도 움이 된다"라며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일 끝내고 와서 피로도 풀고 주민들끼 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거주지에 작은 목욕

배관 정비, 바닥 누수공사 등도 마무리 당이 없거나 거리가 멀어 이용이 힘든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올해 2월부터

대상은 무주읍 전역과 무풍면 삼거 기간에 보일러 이상 유무와 수도 등 시 상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우대 군민은 리, 설천면 삼공리, 심곡리 지역 어르신 2천여(방문 목욕 수혜자 포함 시설 입 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명으로 7,8월 혹서기를 제외한 달에 1인당 월 1만 원 적상면은 목욕탕 탈의실과 휴게실의 리 회포도 푸는 사랑방 역할도 한다"라 씩을 지원(충전용 '목욕 전자 이용권 카 드')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전북 최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본인부담금50%까지지원

진안군은 7월부터 전북특별자치 도 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가임력 보존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결혼과 출산을 늦추는 사회 적 추세 속에서 임신 시기를 고민 하는 여성들에게 난자동결은 선택 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진안 원 제도를 마련했다.

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으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인 경우이다. 단, 20세 이상 29세 이 하 여성은 조기폐경 가능성(AMH

1.5ng/ml)이 있는 경우에 지원가능 하며, 난소기능 저하 유발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AMH 수치와 관계 없이 지원한다.

시술비는 생애 1회, 본인부담금 의 50%(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 며 병실입원료 및 보관료 등은 제 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을 시 술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안 군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진안군은 냉동한 난자를 군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 사용하여 향후 임신을 시도하는 경 우'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은 시술일 기준으로 1 사업'을 통해 회당 최대 100만원씩 두차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진안군 보 건소 모자보건실(063-430-8539, 8513)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군, 아름다운 금강변 마실길 걷기 성료

## '전북삼천리길페스티벌in무주'

'2025 전북 삼천리길 페스티벌 in 무 주 아름다운 금강변 마시길 걷기 행 사'가 1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무주군관광협의회,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삼천리길의 핵심 구간인 '무주 금강변 도 너무 좋고 이제 막 가을이 물들기 마실길'을 걸으며 아름답고 깨끗한 무 시작한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오길 주의 자연환경을 알리고 군민 건강증 진에도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 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학생과 주민 좋겠다"라고 전했다. 등 무주군민, 그리고 관광객 등 25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무주군 부남면 잠두강변 길에 집결해 요대마을, 안요대마을을 거쳐 무주읍 서면마을 소이나루 공원 까지 7.4km를 함께 걸으며 금강변 산 야에 깃든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주민 한 모 씨(58세, 무주읍)는 "날씨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무주에 살면서도 금강변 마실길에 와 볼 기회 가 없었는데 이 길이 많이 알려지면

/무주=최의호 기자

## 최훈식 군수, 주택화재 현장 방문 … 피해 주민 위로

장수군은 지난 10일 발생한 주택화 했다. 재 피해 현장을 최훈식 군수가 직접 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주택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행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 관과 협력할 방침이다. 를 조사 중이다.

계 공무원에게 조속한 사고 수습과 지 원, 재발 방지 대책 등 복구에 필요한 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

장수군은 즉시 임시 식량과 생필품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조속한 등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장수군 주택 일상회복과 피해복구를 위한 대책 마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피 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번암면 소재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절차를 병

또한 피해 규모를 면밀히 확인해 주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거 안정과 생활 회복에 필요한 지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현재 장수군과 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어 실의에 잠 최훈식 군수는 화재 현장에서 피해 긴 군민 최 씨는 "화재 피해로 힘든 시 주민을 위로하고 상황을 점검하며 관 간을 보내고 있지만, 장수군의 빠른 대 응과 지원, 위로의 손길이 큰 힘이 되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총 7개 분야 장학생 신청·접수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지원하 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 단 장학생'을 선발한다.

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학생 주 원할 수 있다. 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생 희망장학 금 △특기 장학금 △예체능문화인재육 외 이사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확정

성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대학·비 해 12월 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이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14일까 351-2567)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재 단 사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통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민 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학사업과 교육 등록 주소지가 2년 이상 장수군에 등록 2025년 하반기 장학금은 총 7개 분야 된 군민 또는 그 자녀로 해당 분야에 지

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하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063-

최훈식 이사장은 "지역 인재들이 경 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상전면 용담댐수몰민 위로 망향제 개최

진안군 상전면은 16일 상전면 망향 제를 개최하고 있다. 의 광장에서 2025년 상전면 망향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상전면 이장협의회(회 장 안상용)가 주관했으며 관외 향우회 와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마을 주민 었다. 등 100여명이 참석해 용담댐 수몰로 고향을 잃은 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 점심식사를 하며 이웃과 고향 선후배 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전면은 2001년 용담댐 건설로 6개 다. 행사 참석자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 리 20여개 마을 1000여 세대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를 기념하고 실향민들 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해마다 망향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헌화, 분향이 진행됐으며, 상전면 출신 허호석 시인 이'그리운 山河'라는 시를 낭송해 같은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과 위로를 이끌

망향제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보냈 지 못하였고, 내년 행사를 기약하며 아 쉬움을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 계남면지사협 취약가구 대상 이불 세탁 봉사 실시

장수군 계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 장 김명호·진영순)는 계남실내체육관에서 위 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주거 취약가구 를 대상으로 겨울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실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협의체 위원들이 평소 돌봄 활 동을 하며 확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 해 추진됐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세탁시 설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위생 상태가 좋 지 않은 이불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는 장수군자원봉사센터의 세탁 차량 을 지원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10가구를 대 상으로 가구당 겨울이불 2채씩 세탁했다.

위원들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확 인하며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 후 깨끗하게 말린 이불을 다시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 했다.

세탁 서비스를 받은 한 어르신은 "힘이 없어 겨울 이불을 직접 세탁하기 어려웠는데 이렇 게 깨끗하게 세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마 움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완주군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가정 대상 도자기 체험 운영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최근 관내 취약계층 아 동 가정 26명과 함께 소양면 일원에서 도자기 체험 등 '가족愛 문화공감 힐링 체험 프로그램' 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체 험형 가족 프로그램으로, 참여 가족들은 도자 기 만들기 체험과 오성제·위봉산성 탐방을 통 해 정서적 유대감을 다지고 지역 문화자원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문 도예가의 지도 아래 진행된 도자기 체 험에서 직접 흙을 반죽하고 물레를 돌려 각자 의 취향을 담은 작품을 완성했으며, 창의력과 성취감을 높이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이 됐다.

/완주=김명곤 기자

# 제42기 진안군노인대학졸업식 개최

## "배움으로꽃을피우다"

리센터에서 제42기 진안군 노인대 학 졸업식을 대학생, 내빈 등 100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졸업식에는 노인대학생 70명을 비롯해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의장, 전용태 전북도의 원, 구동수 진안군노인회장, 전현 준 대학장, 읍·면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수여 및 졸 업식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 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건강한

졸업식에서는 대학생 70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모범 학생 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희(회장 구 창으로 △군수상 이한진(남 77세), 동수)는 16일 진안군 어르신일자 박종국(남 76세), △진안군의회의 장 이옥임(여 78세), 곽옥선(여 63 세) △진안군노인회장상 김영애 (여 86세), 황양례(여 86세) △대학 장상 유영종(남 77세), 이전자(여 84세) △감사패 곽경자 진안군여 성자원활동센터 회장이 수상의 영 예를 안았다.

> 졸업생 이한진(학생장)씨는 "노 인대학에서의 배움은 제게 긍정적 노후를 위한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고 학우들을 만나서 했다"고 전했다. 웃으며 보내는 이 시간이 참 행복

/진안=전길빈 기자

# 바이전주우수업체協, 'GOGO 페스티벌' 수익금 1천만원 기부

## 지역경제 활성화 동참

전주시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이전주우수업체'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전주함께장터' 프로젝트에 동 참했다. 바이전주우수업체협의회 (회장 전상문)는 16일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전주함께장터' 기부금 1000 만 원을 전달했다.

팝나무 장터와 지난달 전주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2025 바이전주

GOGO 페스티벌'의 판매수익금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역기업이 시 민의 소비로 얻은 성과를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에서 벌 어 지역에 쓰는' 선순환 경제 구조 를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바이전주 우수상품 인 증제는 시가 품질과 기술력을 인증 한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이번 기부금은 지난 4월 열린 이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46개 기업이 인증받아 활동 중이다.

/정혜민 기자





## 재경임실군민회, 임실군에 600만원 기탁

난 8일 '2025 임실N치즈축제' 현 로, 매년 다양한 교류와 화합 행사 장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600 를 통해 고향과 향우회원 간의 유 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50여 명의 회원 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마련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한 것으로, 10여 명의 회원이 직접 마련한 이번 기부금이 군민의 복 축제 현장을 찾아 기탁식을 진행 지 향상과 지역 발전에 조금이나 하며 고향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 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

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임 했다.

임실군이 재경임실군민회가 지 실 출신 인사들의 대표 향우 단체 대를 이어오고 있다.

재경임실군민회 이종명 회장은 로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속적으 재경임실군민회는 서울과 수도 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

/임실=한병열 기자



익산행복<u>나</u>눔마켓'뱅크

레일유통(주) 호남본부는 익산행 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따뜻한 말했다.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물품은 쌀과 라면 등 생 에 감사드리고, 민관이 함께 힘을 필품 위주로 구성됐으며, 익산행 복나눔마켓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유석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이날 코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도움이 필요 한 이웃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복나눔마켓·뱅크에 100만 원 상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꾸 당의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 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 부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건 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 익산시 관계자는 "뜻깊은 나눔 모아 나눔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 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 고부면 부녀회, 취약계층에 밑반찬 나눔

정읍시 고부면 부녀회(회장 유연숙)는 지난 15일 관내 저소득 및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게 지원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추진

이 사업은 영양결핍이 우려되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40여가구를 선정해 직접 밑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복지서비 스로,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정 읍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수성동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에도 일부를 기부해 나눔문화 확 산에도 동참했다.

유연숙 회장은 "혼자서 끼니 해결이 어려운 분들에게 밑반찬을 지원해 영양 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고부 부녀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달에 있 을 김장김치 행사와 12월 불우이웃돕기 행사 에도 참여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만들기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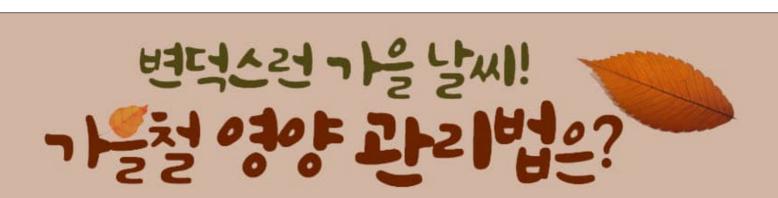
## 순창군 농·축협 순창장류축제 '대박 기원' 행사

NH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 난 14일 관내 농협 조합장, 순창농협 고향주부 모임 회원 등 20여명과 함께 군지부 텃밭정원 에서 눈부신 성과와 행운을 상징하는 '커다란 (大) 박'을 수확하면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가 '대박'나기를 기원하는 축제 홍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신종철 군지부장,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 동계농협 양준섭 조합장, 구림 농협 김순용 조합장 등이 참여해 주차장에 조 성한 '텃밭 정원'에서 보름달처럼 둥근 '대박' 과 여주, 파프리카 등을 수확하며 농업가치 확 산을 위한 농심천심 운동을 전개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직접 수확한 커다란 대 박 등을 들고, 순창군이 오는 17일부터 19일 까지 순창읍 전통고추장민속마을과 발효테마 파크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20회 순창장류축 제'의 성공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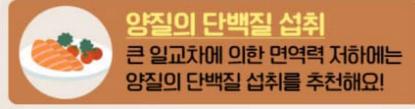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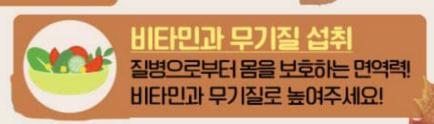


출분한 수분 섭취 건조한 가을, 하루 8잔의 물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세요!



신진대사의 활발한 활동과 풍성한 먹거리로 인한 과식에 주의하세요!





11

〈一事一言〉



## 한국에도 '심층 국가(Deep State)'가 있다(2)

오태규

언론인

올해 한국 쪽 참가자 면면만 훑 어봐도 왜 이런 의문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권은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었 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윤석열 정 권 취향이거나 보수 성향 일색입 니다. 일례로, 한국 대표 33명 중 에 유명환 회장(노무현 정권 때 주일 대사·이명박 정권 때 외교 부 장관)을 포함해 신각수·윤덕 민·박철희 등 주일 대사 출신이 4 명이 들어 있습니다. 유 회장 외 에 3명은 모두 보수 정권 시절에 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박 전 대사와 진창수 전 오사카 총영사 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불려 들어왔는데도 참가자 명단 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김대 중·노무현·문재인 정권 때 대사 를 지낸 사람들은 모두 배제됐습 니다. 언론계 사정도 마찬가지입 니다. 보수 성향의 〈조선일보〉, 〈 동아일보〉, 〈문화일보〉 기자와 〈 중앙일보〉기자 출신 기업인은 들어갔지만, 진보 성향 매체에서 는 〈한겨레〉 기자가 구색용으로 유일하게 포함됐습니다. 다른 분 야도 구성원 편향이 대동소이합 니다.

한국 쪽 한일포럼 참가자 구성 이 보수・친일 성향 일색이 된 데 는 유명환 회장의 책임이 큽니다. 형식적으로 5인 운영위원회라는 내부 논의 기구가 있지만, 회장 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무엇 보다 회장 선임 과정부터 불투명 합니다. 그는 2013년 공로명 초대 회장으로부터 회장직을 얼렁뚱

땅 물려받은 뒤 10년 이상 장기 집권 중입니다. 한일포럼은 매년 정부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 아 사업을 하지만, '민간 자율'을 명분 삼아 정부의 간여를 피하고 그렇다고 내부의 민주적 의사 결 정 과정을 제대로 밟지도 않습니 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한 사 람이 장기 집권하면서 포럼 운영 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닙니다.

사실 유 회장은 이념 성향과 정

권과 친소를 떠나,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대표'로 나설 자격이 없 는 사람입니다. 그는 김앤장법률 사무소의 고문으로 일하며 한일 과거사의 최대 현안인 강제 동원 문제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편에 서 일한 사람입니다. 2019년 검찰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 용 등의 죄로 기소하면서 내놓은 공소장에 그가 강제 동원 소송에 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그런 사실이 드러 난 뒤에도 회장 자리를 계속 지키 고 있고, 포럼 안이나 돈을 지원 하는 정부에서, 심지어 언론 쪽에 서도 그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사자 는 뻔뻔하게 버티고 주위의 사람 들은 눈 감고 덮어주는 심층 국가 구성원의 '끈끈한 의리'를 이보다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한일포럼 말고도 한일 간 소통 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나 조직 거 의 대다수가 보수 편향, 친일 편 향의 인사들에 포획되어 있습니 다. 1982년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동을 계기로 1984년 한일 간의 문화교류를 증진·강화한다는 목 적으로, 대기업이 출자해 설립한 한일문화교류기금을 봅시다. 이 한기 초대 이사장이 숨진 1995년 부터 이상우(87) 신아시아연구소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이어받 은 뒤 지금껏 1인 회사처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는 이명박 정권과 윤석열 정권에 서 친일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 했던 김태효 씨의 스승입니다. 그 는 2013년부터는 이사장 자리를 유명환(79) 씨에게 물려줬지만, 회장 자리를 만들어 이사장 시절 부터 30년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한 일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 한 한일문화교류회의도 비슷합 니다. 현재 3기째를 맞고 있는데 정구종(80) 전〈동아일보〉동아 닷컴 대표이사가 2009년부터 16 년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 동 전체 기간의 60% 이상을 한 사람이 떠맡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한일 관계는 일부 보수·친 일 편향의 노인네들이 과다 대표 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수직 에서 수평으로, 정치·경제 중심 에서 문화·예술을 포함한 다방면 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한일 관계의 창구를 틀어쥐고 있는 세 력은 여전히 수직관계 속에서 정 치·경제 쪽에 편향된 교류를 해 왔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 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뿐 더러 한국의 달라진 위상도 대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일 관계나 외교・ 안보 영역에만 있는 문제라면 그 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목도하고 있는 바처럼 외교뿐 아니라 검찰 과 법원, 언론 등 사회 각 분야에 서 시대 변화를 대변하지 못하면 서 계속 이전의 권력을 누리려는 기득권 세력이 강고하게 똬리를 틀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끄떡없이 권력을 누 리는 이들 세력이야말로 심층 국 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대 교체, 세력 교체와 함께하 지 않는 상층부만의 정권 교체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진정한 정권 교체는 사 회 곳곳에 숨어 활동하는 '그들만 의 심층 국가'를 뿌리 뽑고 그들 이 자라날 수 없도록 객토 작업까 지 끝내는 것, 그래서 '모두의 국 가'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 다도 겉이 아니라 속을, 머리 위 가 아니라 발밑을 잘 살피는 용의 주도함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와 식품의 융합,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키우자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 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년 인구의 급증 과 함께 만성질환의 장기화, 의료비 증 가, 건강수명 단축은 더 이상 개인의 문 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의료와 식품이 융합된 새로운 산 업, 즉 '메디컬 푸드'가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영양 보조가 아니라, 질환별 환 자의 회복과 치료를 돕는 맞춤형 식이 요법으로서, 의료와 식품 산업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 다.

이런 신산업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감 지하고 구체적 비전을 제시한 곳이 바로 전북이다.

최근 한 포럼에서 전북연구원 정세영 석좌연구위원은 'Medical Food, 왜 전북 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전북이 메 디컬푸드 산업의 최적지임을 역설했다. 그는 메디컬푸드를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명확히 구분하며, 의료인의 감 독 아래 질환별로 설계·처방되는 '영양 치료 수단'으로 정의했다. 환자의 회복 률 향상과 재원 기간 단축 등 임상적 효 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각별하다.

정 연구위원이 전북을 메디컬푸드 산 업의 중심지로 지목한 이유도 명확하다. 전북은 원료 재배, 연구개발, 제조, 수출 까지 하나의 벨트를 갖춘 유일한 지역이 다. 약용작물 기반의 풍부한 농업자원,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북농업기술원 같은 연구·산업 인프라, 새만금 RE100 기반의 친환경 산업단지, 군산항 수출 인프라까지, 메디컬푸드 산업의 가치사 슬을 완성할 모든 조건이 집약돼 있다.

전북형 메디컬푸드 전략은 단지 산업

하나를 키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 은 농업과 바이오, 의료와 식품을 하나 로 엮는 융합산업 혁신모델이다. 고령화 시대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농 가 소득 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수출 산 업화 등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기 위해서는 전북자치도의 전략적 역할 이 결정적이다. 우선, 메디컬푸드 산업 을 단순한 연구 과제로 두지 말고 '전북 형 미래 전략산업'으로 공식화해야 한 다. R&D-산업-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병원을 연결 하는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또 한 전북 특산물 기반의 기능성 소재를 표준화하여 세계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품질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 은 규제 완화와 제도적 지원으로 산업의 토대를 다지고 민간 기업은 기술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통해 산업의 외연을 확장 해야 한다.

이제 전북은 그린바이오를 넘어 레드 바이오, 즉 의약·건강 중심의 바이오산 업으로 확장할 전환점에 서 있다. 메디 컬푸드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전북의 새 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다. 단 순한 '식품산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지 키는 '치료보조산업'으로서, 미래 고령 사회의 핵심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

전북이 메디컬푸드 산업의 국가 거점 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이는 단지 지역경 제의 성장만이 아니라 국가적 건강복지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다. 농생명과 의 학, 식품과 과학이 융합된 전북형 메디 컬푸드 전략이 한국 바이오산업의 새로 운 길을 열기를 기대한다.

## -|독자광장|

## 노인 안전, 재난 대응의 새로운 과제



고령화 사 회를 넘어 초고령 사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51만 명으로 전체의

경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

습니다.

서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위험에 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높았습니다.

령화는 소방 안전과 응급의료 체 맞춤형 생활 안전망 설계라 할 수

우리나 계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 있습니다. 습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의 안전을 가 필요합니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 중심의 관리, 정밀한 대응 체계, 교육·문 회로 진입 화적 기반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주거환경 전반의 화재 안 전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은 노후화된 전기·가 20.3%를 차지하며, 이는 안전 환 스 설비로 인해 취약하므로 노후 설비 교체와 정기 점검이 필요합 니다.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고령자는 화재와 응급 상황에 은 화재 확산 위험이 커 자동화재 탐지·스프링클러 등의 설비 점검 크게 노출되고, 작은 사고도 치 과 방화문·비상구 관리가 철저히

특히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화재 사망자의 56%가 60세 이상 은 대피 시간이 길어 피난안전구 이었고, 2023년에도 65세 이상이 역 확보와 유도 체계 강화가 필수 43.4%를 차지해 고령층의 화재 적이며, 시력·청력이 저하된 어르 위험이 인구 비율보다 두 배 이상 신을 위한 시각·음성 보조 설비 와 무장애 대피 통로, 저층부 안 또한 심정지 등 응급환자 역시 전 주택 보급 같은 정책도 병행 절반 이상이 고령층으로, 응급 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고 점검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맞는

둘째, 응급 대응 체계의 정밀화

고령자는 응급 상황에서 스스 수 있습니다. 로 대처하기 어려워 골든타임 확 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119안심콜 제도의 홍 보와 활용을 강화해 건강정보 등 록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의 정확 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 대응과 노인 특화 응급처치 교 육을 강화하고, 의료·복지·소방 이 연계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 계를 구축해 생활 거점의 응급 상 야 합니다.

학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교육과 훈련은 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VR·AR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과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 과정 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위 입니다. 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피 드백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를 통해 교육과 훈련이 단순한 체 험을 넘어 정책을 보완하는 지속 가능한 안전 시스템으로 작동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 관심과 연대입니다. 집 안의 노후된 콘센트를 교체하거나 가 스 밸브를 점검해 드리는 작은 실 천이 어르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 습니다. 소방의 역할은 안전을 위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치매 환 한 제도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안전은 시민 모 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일 때 완성됩니다.

안전은 사회적 약자를 지킬 때 황에 신속히 공동 대응할 수 있어 그 의미가 깊습니다. 노인의 안전 은 한 세대를 넘어 우리 모두의 셋째,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며, 작은 관심 과 준비가 생명을 살린다는 사실

소방은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 거동 불편 어르신 맞춤형 대피 시 에 맞는 예방 중심 정책과 맞춤형 나리오 훈련 등으로 한 단계 더 대응 체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

> /정읍소방서장 이상일

## 오늘의시 가족의 힘 / 류근 애인에게 버림받고 돌아온 밤에 아내를 부등켜 안고 엉엉 운다 아내는 속 깊은 보호자답게 모든 걸 안다는 듯 등 두들기며 내 울음을 다 들어주고 세상에 좋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세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따뜻한 위로를 잊지 않는다 나는 더 용기를 내서 울고 아내는 술상을 봐 주며 내게 응원의 술잔을 건넨다 이 모처럼 화목한 풍경에 잔뜩 고무된 어린 것들조차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노래와 율동을 아끼지 않고 나는 애인에게 버림받은 것이 다시 서러워 밤늦도록 울음에 겨워 술잔을 높이 드는 것이다 다시 새로운 연애에 대한 희망을 갖자고 술병을 세우며 굳게 다짐해 보는 것이다 시인 약력: 1966년 경북 문경 출생. 중앙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네', '상처적 체질', '어떻게든 이별' 등이 있다.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원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전주지사 010-9845-4113 임실지국 010-6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증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인무지사 010-8640-6855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렸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희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

문 화 재 열 전



## 전주향교소장완영책판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시대 조선시대
- 지정일 2005년 12월 15일
- 소재지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

력을 불어넣는 산림복지 거점 역할을 톡

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하반기 관광·산림·문화 사업 본격화 시민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동시 견인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문*턱 일간은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했다. *에서 정읍시가 새로운 도약의 채비를 마* 이 기간 동안 시청 각 부서와 정읍경 **쳤다.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관광, 산** 찰서, 정읍소방서, 내장산국립공원사무 리, 문화·시설 등 다방면에 걸친 굵직한 소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 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시 축, 일평균 209명, 총 4172명의 인력을 민의 삶에 풍요를 더하고 지역 경제에 새 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지속가능한 힐링 도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읍시는 내장산과 구절초라는 독보적 인 자연 자산을 중심으로 힐링과 체험이 공존하는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는 한편, 산림휴양 및 문화 기반을 촘촘히 확충하 며 정읍만의 색깔을 담은 도시 브랜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사 업들은 △장금이파크 정식 개관 △내장산 단풍철 행락질서 확립 △내장산 자연휴양 림 시범 운영 △제18회 정읍 구절초 꽃축 제 개최 △임산물체험단지 차향다원 활성 화등이다.

각 분야의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문화 콘 텐츠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읍시 전반의 경 제·문화적 활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 로기대를모은다.

### 가을의 절정, 내장산과 구절초... 정읍 대표 축제로 관광객 맞이

지 색으로 물든다. 대한민국 대표 단풍 명소인 내장산은 올해 10월 24일경 첫 선물한다. 단풍을 시작으로 11월 5일경 절정을 이 풍 성수기를 맞아 내장산을 찾는 수많은 개막 축하공연에는 가수 장민호, 박창 있는 관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총력 연해 가을밤을 수놓는다. 주말에는 개그 범 운영을 결정했다. 을 기울인다.

질서 확립 대책'을 본격 추진하는 것이 게 소통할 예정이다.

다. 특히 관광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화 상되는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16 상황을 안내하는 등 방문객 편의를 위한

투입해 관광 안내부터 교통 통제, 쓰레 기 처리, 위생 및 안전 관리까지 전방위 적인 활동을 펼친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불법 노 점 '내장산 자연휴양림'이 있다. 점상, 호객 행위, 바가지요금을 근절하 기 위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3無 캠페인(호객·바가지·불법판 매 금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내장산 상가번영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 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상생 이러한 노력은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 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정읍의 긍정 적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읍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새하얀 구절 초가 은은한 향기를 뽐낸다. 2006년 조 성 이후 매년 50만 명 이상이 찾는 가을 꽃 여행의 명소,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편집자주)**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제18 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화려하게 펼 이파크가 정읍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 쳐진다.

올해 축제는 '맛있는 정원(자연요리체 다. 험)', '작가의 정원(반려식물 만들기)', '치 유의 정원(나들이 요가)' 등 정원을 테마 정읍의 가을은 단풍과 구절초, 두 가 로 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 여 방문객들에게 건강과 치유의 시간을

맨 김영희&정범균, 윤택, 최양락&팽현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숙 부부가 출연하는 '명사 토크콘서트' 28일간 '2025년도 내장산 단풍철 행락 가 열려 꽃밭을 배경으로 관객과 유쾌하

또한, 품평회 를 통해 엄선된 지역 마을과 업체 들이 참여해 구절초 두부김치, 산채비빔 밥, 정읍 한우 등 정읍의 맛을 선보이는 먹거리 장터는 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다. 시는 축제장 진입도로의 일방통행을 세심한 준비도 마쳤다.

## 이야기가 있는 힐링 공간... 체류형 관광 의 새 지평을 열다

정읍시는 스쳐 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 물며 치유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의 도약을 꿈꾼다. 그 중심에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 '장금이파크'와 숲속 힐링 거

9월부터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한 '장 금이파크'는 음식과 치유, 이야기가 어 우러진 체험형 복합문화테마공간이다. 2017년부터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총 8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된 이곳은 산내면 장금마을 하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에 전해 내려오는 장금설화를 현대적으 로 재해석했다.

방문객들은 의녀 대장금의 정신을 계 승한 약선요리, 발효음식 등 치유 음식 을 직접 맛보고, 정읍 특산 약재를 활용 내장산의 붉은 단풍이 절정에 이를 때, 한 쌍화차 만들기 등을 체험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아름다운 산내면의 자연경관 속에서 특별한 스토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금이파크만의 독보적인 매력이다. 오 는 10월 1일 열리는 정식 개관식은 장금 지로 발돋움하는 힘찬 신호탄이 될 것이

도심을 벗어나 온전한 쉼을 원하는 이 들을 위한 '내장산 자연휴양림'도 내년 정식 개장을 앞두고 10월부터 11월까 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용산동 일원 49ha 부지에 조성된 휴양림은 산림휴양 축제의 흥을 돋울 화려한 공연도 준비 관 1동과 숲속의집 9동을 우선 선보인 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시는 가을 단 돼 있다. 10월 18일 오후 3시에 열리는 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시설물 을 점검하고 이용객의 목소리를 듣기 위 인파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품격 근, 김태연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출 해 정읍시민과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시

> 시범 운영 기간에는 산림휴양관 1만 원, 숲속의집 3만원~5만원이라는 파격 적인 사용료로 이용 기회를 제공하여 시 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내년 숲

물체험단지 내 '차향다원'의 성공 사례 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내장산의 는 이를 증명한다. 작년 대비 1.7배 이상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증가한 9400여 명이 방문한 차향다원은

/정읍=김정인 기자

느리게, 깊이있게 세상을 만나다